

T
398.3
김정희

제주도 巫俗舞의 實體와 特異性에 관한 研究

지도 양 선 희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3년 12월

세종대학교도서관



0297213

세종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김 정 희

김정희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	---

심사위원	인
------	---

심사위원	인
------	---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3년 12월 월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巫俗舞의 實體와 特異성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김 정 희

目 次

(論文概要)	1
I. 序 論	3
1. 研究目的	3
2. 研究方法 및 範圍設定	4
II. 變形過程	5
1. 發生動機	5
2. 發達過程	6
3. 變 形	10
III. 實 體	12
IV. 形態的 分析	16
1. 巫儀式的 側面	16
1) 家祭斗 堂祭	16
2) 單獨儀禮	23
3) 綜合儀禮	25
2. 動作分析	33
1) 畵 動作 分析	33
2) 巫俗舞의 象徵的 分析	43

V. 巫俗에 내제된 藝術的 評價	58
1. 美的價值	58
2. 特異性	59
VI. 結 論	61
** 參考文獻	65
** ABSTRACT	67

表 目 次

<丑 1> 家祭斗 堂祭 祭儀的 形態	16
<丑 2> 巫儀式의 分類	19
<丑 3> 總體的 巫儀式의 分類	21
<丑 4> 單獨儀禮 祭儀的 形態	23
<丑 5> 綜合儀禮 祭儀的 形態	26
<丑 6> 巫俗舞의 象徵的 分析	43

論文概要

제주도의 巫는 도민들의 오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초자연적 존재에서의 순용을 통한 신앙적 본원과 예술의 원형을 살피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앙적 측면에서는 각박한 풍토와 거치른 바다와 싸워온 제주도민의 생활 속에서 저절로 형성된 속신이 담겨 있고, 예술적 측면에서는 그 초자연적 존재에의 順應技藝로서 음악과 무용과 연극의 종합적으로 융해되어 연물악기의 음율에 알맞는 춤과 노래로 극적인 장면연출의 조화를 이루는 민속예술로 발전되어 왔다.

민속예술이 민간신앙 형태인 巫儀式 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타의 것들은 비중이 적으므로 제주도 민속예술을 연구하는데는 巫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도의 민속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민간신앙인 巫에 관한 연구로 제주도 巫俗舞의 실체와 특이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 제주도 巫의 변형과정에 관한 내용은 발생동기, 발달과정, 변형으로 나누어서 연구 하였음.
2. 제주도 巫의 실체에 관한 내용은 무속사고와 巫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음.
3. 제주도 巫俗舞의 형태적 분석으로는 儀式的 측면과 무용동작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 의한 한국무용의 특이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음.
4. 제주도 巫의 예술적 평가는 미적가치와 특이성을 추출할 것임.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문제제기는 제주도의 특수적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예술의 특이성을 가진 제주도의 巫는 민간저계급층에 의한 전승적 문화예술현상이며, 종교현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서 주술과 예술이 생활저변에 융해되어진 예술형태로서 인식하게 된 현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무속의식의 연구 가치

를 무용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무의식의 형태에서 巫俗舞는 주술적 극적 요소에 움직임이 가미되어 전개해 나가고, 어떤 사실의 재현과 연기에 따른 動作을 표현한다. 그러한 동작은 주술적, 연회적인 특성을 제차에 따라 정형화된 구성을 보여주며, 연플악기의 다양하고, 흥겨운 음율에 조화를 이루는 춤과 노래의 극적인 장면 표출로 형성화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I. 序 論

1. 研究目的

제주도 巫는 부락민들이 안고 있는 역사적 사실 고통의 연속이었던 삶의 현장에서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켜준 精神的 依支處였으며,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감정의 淨化作用을 일으켜 왔던 생활예술로서 生의 위기의 절정에서 펼쳐지는 신명풀이이다.

巫는 단골의 목적에 의해 심방의 媒介와 의례집행을 통해 神과 단골이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場으로 신을 請하고 신에게 인간의 기구사항을 호소하며 供饗를 올리고 귀한시키는 방법이 歌, 舞요소에 의해 표출되어 진다.

이러한 歌. 樂. 舞의 쓰임은 巫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며, 제차에 따른 다양한 본풀이와 춤 동작으로 나타나고 있다.

巫의 형태가 가져다 주는 巫舞의 종류와 춤동작, 巫儀式 성격을 살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개하고자 한다.

- 1) 제주도 巫의 변형과정은 어떠한가?
- 2) 제주도 巫의 실체는 어떠한가?
- 3) 제주도 巫의 형태적 분석으로 巫儀式의 종류와, 巫儀式의 형태, 그 주된 동작은 어떠한가?
- 4) 제주도 巫의 예술적 평가로 미적가치와 예술적 의미는 어떠한가?

본 논문은 제주도 심방들에 의해 제도화된 巫俗舞의 실체와 특이성에 관하여 그 대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제주도 민속예술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範圍設定

제주도 巫의 형태적 흐름에 나타난 춤을 연구하는 것은 주술적 巫儀式을 통한 한국 민속춤 형태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 巫儀式의 형태속에 나타난 형식과, 무용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실제 巫儀式에 참여하여 본 경험과 실제 대담, 토론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문헌을 통한 무속자료와 巫人들의 협조로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한 방법이 巫에 의한 제주도 굿이 갖는 요소와 예술성을 발견하고자 하며, 제주도 민속예술에서의 본 논문의 설정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제주도 지역에 제한하여 연구하게 될 제주도 巫의 변형과정을 통한 예술형태를 이론적 배경으로 <발생동기, 발달과정, 변형>을 살펴보고, 제주도 巫의 실체를 통한 굿의식에서 무속사고와, 巫의 본질을 연구할 것이고 제주도 巫俗舞의 형태적 분석으로 인한 내재된 예술성과 무용흐름 등을 상징적 의미에 의한 巫儀式의 분류, 무속무 동작의 분류 분석으로 춤의 종류와 춤 사위를 유출하고자 한다. 제주도 巫의 특이성과 미적가치를 연구로서 그 한계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제주도 굿으로 정하며, 자료에 의한 연구는 문서자료, 영상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속예술로 전승되어 오는 제주도 巫儀式의 분류와 의례의 주축이 되는 歌, 舞, 劇의 형태 연구이며 그 제의식 절차에 따른 巫俗舞의 상징적 상징적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로서 제주도 굿의 예술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變形過程

종교의 기원이나 정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그것은 제각기 인류사상 종교현상의 일면을 밝히는데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多神多靈적인 여러 종교의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는 종교의 기원이나 정의는 총체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옛 탐라 先民의 巫가 어떤 연원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무속신앙이 제주 문화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그것이 어떤 변형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사적흐름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發生動機

“제주도라는 한국의 특수적, 지리적 여건은 한국內의 특이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 하겠다. 그러한 바탕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신석기 시대 부터 토속신앙으로 발전하게됨과 동시에 주술적 문화예술의 여건이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제주시 용담동 오라동 일대, 북제주군, 애월읍 일대, 남제주군 가파도 등지에 支石墓君羊이 분포되어 있으며, 북제주군 조천읍의 北村遺蹟, 애월읍의 挾才遺蹟, 月令遺蹟등의 발견은 이를 입증한다.”¹⁾는 근거는 실제 광지패총에서 출토된 토제, 석제, 유리제 곡옥이 목걸이 장식품이 아닌 호신용 「방사부적」으로 당시 제주인들이 몸에 지니거나, 목에 걸거나, 애기구덕 상공에 드리워 어린이를 방사보호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약 2000여년 전에 제주도에 인간이 생존하였음을 의미하여 주는 석기가 발견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지석묘(돌맨)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유물

1) 김철준. 제주도지석묘조사보고서. 1959.

들을 통하여 제주도민들은 他界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생활과 같이 종교적인 생활도 누렸음을 증명하여 주며, 이러한 유물과 유적들은 본질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巫의 기원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巫는 민간저금계층에 의한 전승적 문화예술현상이며 종교현상으로서, 저급문화 민족의 생활속에서 자연 발생학적으로 일어나 조직화된 특수한 무속사회의 신앙임과 동시에 주술예술 형태로 인정하여야만 한다. 신앙이 인간을 창조하고 수용하며 이루어진 속신이 오랫동안 서민사회성을 지탱하고 있는데는 그 당시에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한 공통적인 욕구와 동기에 의해 다수 도민이 믿고 수긍하고 복종하는 종교가 되었다.

2. 發達過程

「남사록」 권지1에 <蕭鼓不絶이라 하였다> 이는 통소소리. 북치는 소리. 춘하추동 끊기질 아니하네! 하는 뜻이다.

이 말은 저자 金 尙憲이 他誌에 제주에서는 尙淫祠라 하여 신을 모신 神堂을 숭상하여 높이 받든다 하고 특히 제주목의 광양당과 대정현의 차귀당에는 하얀 무명옷에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참으로 오랫동안 나들이 할 때만 아껴 입은 치마를 두른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제작기 가슴에 고이 간직한 소원을 하소연하고 신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자 숨구름 떼처럼 모여든다. 순박하고 깨끗하기가 명경지수와 같은 이들이 신당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한다하여 이를 土人敬畏如天이라고 김 상헌은 적어 놓았다.

이렇듯 신당의 발달은 무속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제주巫俗의 역사 또한 神堂의 형성과 변천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堂 신앙이 도내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른다. 비교적 오래 전에 문헌에 기

록된 것으로는 金 淨의 「濟州風土錄」이 있는데 1521년에 저술된 바에 의하면 “... 名日이나 삭망과 77일(7, 17, 27)에는 반드시 짐승을 희생시켜서 淫祠를 위함으로 음사는 거의 3백여소에 이르렀고 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 당시 일렛당(할망당)이 있었고, 神堂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문헌제시에 의하면 堂의 개념 성립과 발달은 朝鮮朝 초기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도내에 ‘호적’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인 것 같다. 이 때 마을의 제정일치 장소였던 堂에도 호적, 장적이 생겼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관헌은 마을 깊숙이 까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자치 기구였던 堂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장려하였다. 이 때문에 堂은 전도로 퍼져 발달하였다.

朝鮮 중기 이후 16세기에 이르러,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주민의 직접통제가 필요해졌을 때 공조의 관계를 유지했던 도내 호적들과 신당의 자치권력은 장애물로서 神堂탄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佛敎, 巫俗을 미신시하는 유교정책은 神堂이나 佛寺를 파괴하게 했다. 明宗때 朴을 牧使의 불사파괴를 시초로 肅宗때 이 형상 목사가 淫祠와 佛寺 130여 개소를 파괴하고 巫覡 400여명을 歸農시킨 사건은 제주 전통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이 재수의 난(聖敎亂)으로 말미암은 異敎徒들도 한 때 무속신앙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였지만 巫俗의 강한 전통성은 우리의 내면적 생활에 뿌리박혀 끊임 없이 계승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先民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수 많은 神들을 섬기면서 집안과 바다와 산천에 의식행사로서 소원성취를 기원하였을 것이다. 해안마을에서는 바다를 다스리는 연등神을 섬기는 海神堂이 있고 중산간 부락에도 마을을 지키는 本郷神이 좌정한 本郷堂이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도 올래에서 부터 우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신들이 자리해 있다고 믿어왔다.

2) 제주도 통권 제89호 제주도.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0. p.66.

제주사람들이 오랜 세월동안 많은 神들을 섬기는 巫俗신앙을 세시풍속으로 되풀이하며 지켜온 배경에는 제주만이 지닌 특이한 기후, 풍토와 함께 형성되어진 역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지역과 남다른 변천과정이 생성한 개성이 내재되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의 巫俗신당은 마을 집단의 혈연적 또는 지연적 생활을 통한 본향堂神의 사회적, 집단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부여된 비 선택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파생하고 수용되어 온 개인적, 자의적 범 지역적인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은 그 근간을 제주 선민의 정착된 삶의 농경생활 이후에 두고 그 혈연 및 향토의 부락형성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성립 발전되어 왔고, 동시에 그 집단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전통무속사회로서 神堂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로 神을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탈이며 神이 내리는 길흉과 재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堂神을 중심으로 몇몇의 姓氏집단이 <단골>을 형성한 신앙 및 씨족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신앙 공동단체 감정의 표현통도로서 巫儀式은 오랜 세월동안 민간생활속에서 무수히 태어나고 사라져버린 종교현장들 가운데에서도 지연적인 단합과 화목을 꾀해온 유일한 제례로 알려져있다.

人間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가 巫의 祭儀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 祭儀는 민간인들의 생존적 현실이자 존재방법이 되어 왔으며, 단순한 의례적 행사나 어떤 상징적 모방의 반복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실현되는 생의 실체현장으로서 삶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져온 민중삶의 현실적 위안의 계기 설정으로 보아야만 한다.

제주도 巫의 역사는 그 성격과 기능면에서도 우리나라 고대사에 기록된 부여의 迎鼓, 예의 舞天, 고구려의 東盟, 삼한의 춘추농경의례등과 같이 생산의례적인 제정 일치의 민족축제놀이에 뿌리를 두어 전승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고대 탐라 제주도先住民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의식에 도달할때 까지에는 오랜 연대가 필요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血緣的. 地緣的 유대와 같이 유형적인 생활양식과 신앙에 배양된 다수 도민의 신앙 심의가 큰 역할을 하여 고유문화 형성의 기초 구조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무속신앙은 오랜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전통교적인 미분화의 상태로 혼용되고 복합적인 주술종교로 전락하였다.

敎祖가 있고 敎理組職과 교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종교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교리면에서나 계율 면에서는 다른 종교와 복합적이며, 신앙의 밑 바탕에는 주술 종교적인 면이 강하게 풍기고 있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신흥종교 형태이기 보다는 무속신앙의 유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문명사회 속에서도 심방들의 속신이 우리사회에서 하루 바빠 몇몇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로 공인받고 싶어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자유당 정권때만 하더라도 심방들은 이같은 무속신앙을 警信會라는 명칭으로 행정당국으로 부터 인정을 받았었고 자유로히 활동했었다. 그러한 사실입증은 다음 아래와 같다.

“1959년 당시 제주도내 각 시. 읍. 면 별 경신회 회원은 모두 394명이었는데 이들은 심방. 삼성할망. 점장이. 축문장이를 포함한 巫業으로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행정당국의 인가를 계기로 내부조직을 서둘렀고 마치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무속신앙의 고급화를 꾀하였다.”³⁾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다. 일반적 巫人들의 저급화 의식은 부인할 수 없는 인식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제주 전 지역을 한데 묶는 신당을 계통 화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요인으로써 제주도 무속신앙이 너무나도 多神多靈적인 신앙 형태이기 때문에 합일된 어떠한 새로운 체제를 택하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

3) 제주도 무속의 비교연구. 제주대학교 국문학보. 5집.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73. p.91.

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적 조직기구의 부서에 따른 명칭으로 ‘도황수’, ‘도공원’, ‘면황수’, ‘면공원’의 종류를 갖는 上神층을 비롯 中神층, 下神층, 성방, 신내의 심방계층, 당집의 규정, 당하님의 임명, 堂 祭儀의 의식제정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한 가지의 체계로 조직화되었지만 결국, 행정상의 조치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다.

오늘날 제주도에는 본향을 비롯한 그 밖의 神堂의 본풀이(神話)와 굿과 심방과 단골사이에서 자연종교요, 민간사상이라는 하나의 유형적 양상을 갖고 지금까지도 이어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해질 요소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간직되어 있다 하겠다.

제주도의 巫俗文化는 자연환경과 外患과 收奪과 고난의 역사속에서 형성되고 끈질기게 전승되어 온 민간생활 예술이었다.

3. 變 形

朝鮮朝 현종때 李源祚의 「탐라지초본」에 “上古에 한 神女가 있었으니 일련기를 沙曼頭姑라 하였나니라”⁴⁾로 시작된 한 문단이 있다.

신녀인 沙曼(Saman)은 巫人을 의미하며 제주도 방언으로는 ‘尋房’인 것이다. 頭姑란 우두머리 여인, 곧 Saman이란 낱말에 붙어 ‘首尋房’이란 뜻 이다. 통구스에 기원을 둔 Saman이란 말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은 제주무속의 계통을 명시해 주는 자료이다.

도덕적 가치기준을 전제로 하는 불교의 내세관이 이식되면서 巫·佛의 융합으로 來世를 막연히 ‘저승’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내세관에 도덕적 가치기준에 의한 요소와 함께 巫신앙의 작용은 그 原狀을 파악하고 신앙의 절대치와 가치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인 방향통일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4) 탐라지초본. p.165.

그것은 무속이 원래 가지고 있던 敍上한 내세관이 불교전래 후 불교의 영향을 善, 惡의 2元化의 현상을 가져와 樂地와 惡의 징계처가 있게 되어 극락과 지옥으로 분화되고 극락을 서방정토로, 지옥을 불교상의 지옥으로 규정하게 되어 권선적 巫儀式이 작용되는 동안, 민간에게 신앙적 성격을 띤 자의적 권선징악의 심리적 생활지침이 되어 사회적으로 도덕관을 보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巫. 佛의 융합은 무속 본연의 원형사고 기반에 불교 내세형태의 외적 모방으로 제주도 巫의 형태는 불교적 색채와 고장 고유의 animism적인 내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도민의 정신문화재(無形文化財)로 전승되는 무속신앙은 평화롭고 정상적인 시대에는 고요하게 속신되어 왔으나 전쟁 비상사태 속에서는 사회의 융달에서 더우기 부녀자들의 품 속에서 강렬히 신봉되어 지켜져 왔었고 그것은 이형상 목사가 堂. 佛寺를 부수었을 때나 미신타파를 부르짖던 일제시대나 도는 근래 新생활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다름없는 현상이었다.

사회적인 변천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무속신앙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더불어 겪어온 역사적 변천의 여러단계를 말해 주는 것이고 다양한 현상은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유형 또는 그 변화의 법칙과 제열을 발견하고 그 본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III. 實 體

巫는 존재의 순환지속을 믿는 무속의 입체적 존재사고에 의해 불행을 행복으로 가난을 富로 죽음을 삶으로 바꾸려는 동일근원성(未分化)의 결과에 기반을 둔 제의로 제주도 말로는 심방굿이라는 말할 수 있다.

巫覡인 신방을 薩滿, Shaman, Saman, 심방으로 불러짐은 그 뜻이 황홀경에서 흥분하는자 蹈舞로 번역되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곤충이나, 옛 지명에서 보이는 신적인 언어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호랑나비를 제주도 방언으로 신방나비라 하는 것과 방아깨비를 심방말축이라 하는 불리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방은 神靈과 神堂 인간의 3자 사이에서 주문을 외우며 춤을 추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초인간적 呪術師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신령을 붙잡는이’라는 源儀에서 파생되어진 ‘신령을 만나는이’ 또한 ‘신령을 찾는 이(尋房)’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 巫는 심방(巫覡)과 본풀이(神話), 본향(神堂)의 삼요소 형식을 갖추고 있고 제주도 내 300여 군데 신당 어디에서나 신격의 계보나 단골조직을 갖고 있다. 민간생활은 반영하고 있는 巫의 신앙전파와 수용을 비롯, 대사회적 기능으로 巫覡을 통한 인간과 신령이 交通한다.

이는 태초에 일어났다고 믿는 신화적 사실을 眼前에 재연하는 것으로서 신성한 신화적 세계로 현실화 되고 신이 베푸는 은혜가 바로 현실의 것이 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예로 제주도 巫의식에는 불도맞이와 성주굿이 있는데 ‘불도맞이’에서 실제의 실연을 져상위의 동백꽃 사발을 가져내어 바지속에 숨겨 주부에게 가져가, 신성한 세계인 서천꽃밭의 꽃을 훔쳐내어오는 신화적 사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성주굿에서 강태공으로 분장한 小巫가 대나무 가지고 모형의 집을 짓는 행위

를 하는데, 이것은 建築神이 직접 그 집을 지어주는 신성하고 엄숙한 작업 그 자체이다.

그 사실을 재연함으로서 의례를 하는 시간. 장소. 내용은 신성한 시간. 장소. 신화적 세계가 되며 신의 행적이 되어 현실세계로 변하여 신화적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祈求사항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의례효험을 보여준다.

제주도 巫는 심방이라는 직능자를 매개로 하여 민중이 공동으로 享有하는 감정적 전율, 공동체를 하나의 원시적 心靈으로 융화시키는 '집단적 한풀이'로서 제주도민들이 안고있는 역사적 사실, 고통이 연속이었던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켜준, 정신적 의지처였다.

巫는 궁적으로 단골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방의 매개와 의례 집행을 祭次에서 歌, 舞로서 표출되는 의의를 갖는다. 神에 의한 除元招福의 인간사고는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민간층의 생활공동체 속에서 자생하여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종교현상으로 인위적, 목적의식이나 당위성 이전에 이미 민간인의 생활현장이자 종교생활 그 자체이다.

제의를 하는 시간은 인간들이 활동하는 일상적인 생활시간이 아닌 현실공간 밖에 있는 별개의 시간인 카오스(Chaos)가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제의를 하는 장소는 일상적인 것으로 부터 연장이 금지된 장소로 이 세상의 현실속에 있지 않은 별개의 또 다른 공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불로 태워버리고 다른 공간 無공간 상태, 질서가 생겨나기 이전의 하늘과 땅의 공간 구별이 없는 공동의 카오스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의가 이루어지는 시, 공간은 카오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이 생기기 이전의 無를 상징한다. 이러한 面은 제주도 무가(巫歌) 「초감제」서두에 서술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

“천지가 혼합되었구나 / 천지개벽이 되었구나

갑자일로 하늘의 머리 자방으로 열립니다 / 지벽어축하니 땅의 머리
축방으로 열립니다.”⁵⁾

무속사고의 총체가 행동으로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는 제의 속에서 神話가 구현되는 제의현상이 갖는 의미는 일상적인 공간과 시간 밖에 있는 제의현상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인 生, 滅이 없는 영혼계로, 공간성과 시간성에 의한 유형존재의 無限 시발 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出生, 治病, 長壽, 財福에 대한 영구지속의 기원과 목적을 둔다.

巫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육체의 긴장을 풀며 감정의 淨化作用을 일으켜왔던 민간신앙으로서 스펙터클한 ‘신명놀이’였다. 治病, 憂患의 제거, 救福등 실질적인 목적추구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그 의례의 효과를 기대하는 종교적 제의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이 가미되어 그 표현매체나 행위자, 수용자, 그리고 일정한 구조를 갖춘 예능적 형식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주도 巫는 神靈과 神堂, 人間의 삼자사이에서 媒介와 의례집행을 하는 심방을 통하여 부락민들이 안고 있는 역사적 사실, 즉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간 가치의 下落, 가난과 천대와 멸시, 그리고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의욕 상실과 恨으로 웅어리진 잠재의식은 인간으로서 발산할 수도 위협할 수도 없는 무기력 상태의 고통을 무의식을 통하여 심리적 治病하여 준다.

이러한 치료의 기능이 더하여 神을 請해 들어 간절히 기원함으로서 神意를 유화시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祈原有和,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소망과 같은 것을

5) 진성기, 남국의 무가(油引物),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pp861-876.

의례속에서 전개하고 그것이 현실적 성과로 변하는 것을 기도하는 유감주술, 死者의 영혼을 위무하여 저승의 좋은 곳으로 보내는 死靈供養으로서의 撫魂, 질병이나 재앙의 원인이 되는 사악한 神靈, 妖怪를 협박하여 쫓아내는 협박구축의 뜻을 포함한 祭儀이다.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한 정령숭배(Animism) 사상등 외부종교 신앙의 혼입으로 巫는 복합다양한 성격을 이루고 있지만, 불교적 신앙형태와 고유의 Animism적인 내용의 신앙형태인 두가지 요소로 가름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 내면을 종합하여 무속신앙, 민간신앙이라 불리운다.

IV. 形態的 分析

1. 巫儀式的 側面

제주도 巫儀式은 그 기회나 규모, 목적 및 심방이 접촉교섭을 기도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되어 진다. 먼저 그 기회를 보면 가제와 당제로, 규모의 大, 小에 따라 비념과 굿으로 나누어지며, 巫覡이 영혼관계 기초를 두어 접촉 교섭을 기도하는 인간의 혼에 대한 의례와, 신령관에 기초를 둔 신령에 대한 의례로서 일부신령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의례, 모든 신령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의례를 연속적으로 행하는 종합의례로 구분되어진다.

1) 家祭와 堂祭

<표 1> 가제와 당제 제의적 형태

機 會			祭 神	제의의 목적	祭 場	시 기	
당 제 (부락제)	정 기 적	신과세제	본향 神	부락의 안녕, 생 업의번창, 풍요 의 기원	본향당	음력정월초하 루~정월사이	신년제
		영 등 굿	영등 神	해녀채취물 풍요 기원, 해부의 해 상안전 기원	본향당	음력2월초하 루, 13일~15 일 사이	계절제
		마불림제	본향 神	장마풀림을 시도 해서 조를 중심 으로 잠곡의 성 장을 기원	본향당	음력7월14일, 15일	신년제
		백 중 제	본향 神	가축증식기원	본향당	"	
		시만국 대제	본향 神	추곡수확감사	본향당	음력 9월 10월	수확제
	임 시 적	부락이 불운이 계속되는 경우, 개인별로 출산, 질병, 불운등의 기회에 祭儀를 하여 자원한다.					

機 會			祭 神	제 의 의 목적	祭 場	시 기	
가 제 (일반제)	정 기 적	문천제	문신, 가택신	가내의 안전을 기원	제주의 집	음력정월	신년제
		철갈이	巳神	풍농의 富를 기원	밭칠성이라 부 르는 富巳神을 모시는집	음력정월 또 는 첫가을	계절제
		맹감코스	農神	생업의 풍요기원	산, 祭主의 집	음력정월	신년제
		요왕제	海神	가내의 안전기원 바다에서 익사한 사령위무	바다	음력정월	신년제
	임 시 적	불도만지	產育神과 助產神	祈子	祭主의 집		통과의례
		아기비넌	產育神과 助產神	育兒 무병기원	祭主의 집	산후3, 7, 100 日	치병의례
		넋들임		이탈한 넋을 불 리들여 치병	넋이 빠져나간 장소	첫돌, 아기가 아플때	치병의례
		마누라배 송	疫神	천연두 신에게 감사의례	환자의 집	발진이 거의 가라앉을 무 렵	치병의례
		푸다시	범접한 神	범접한 잡귀를 쫓아치병	환자의 집, 해변		치병의례
		구삼승넌	구삼승 神	구삼승神을 협박 구축하여 치병	환자의 집		협박구축의 례,치병의례

상기 분석표에 의하면 가제(일반제)란, 일반가정에 생사, 질병, 생업등을 차지하는

神을 청하여 기원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의례이다. 매 해 음력 정월 또는 첫가을에 행하는 정기적 巫儀와 개인적으로 출산, 질병, 불운등의 기회에 택일을 하여 심방에 의한 기원하는 임시적 무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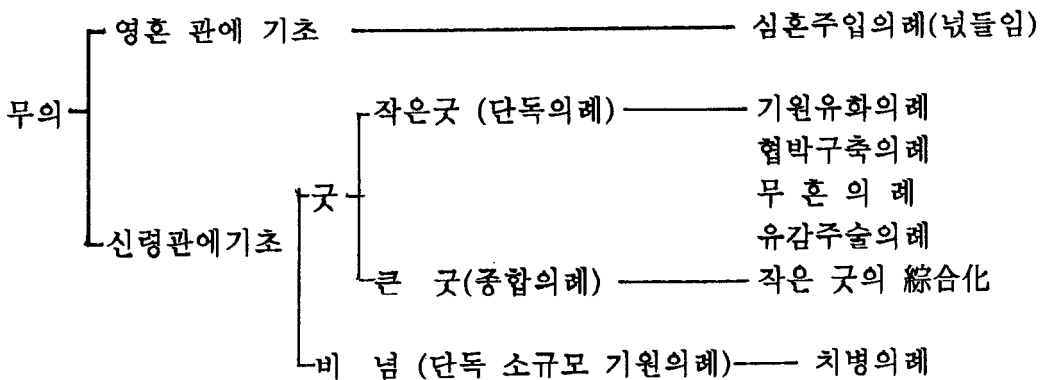
정기적 巫儀는 음력 정월 가내의 안전을 기원하는 <문전제>와 음력 정월 또는 첫가을 기왓장 안에 오곡의 씨를 새 곡식으로 갈아 덮은 후, 문신, 조왕, 율타리 여신에게 가내 안전을 기원하고 풍농과 富를 기원하는 <철갈이>와 매 음력 정월에 農神인 세경, 수렵신인 산신을 청하여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맹감코스>가 있으며, 음력 정월 바다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어부나 해녀가정에서 새해 무사번창을 빌고 출타한 가족의 행운을 기원하고 바다에서 익사한 사령을 위무하는 <요왕제>가 있다. 이러한 정기적 巫儀는 연중행사 의례와 신년제, 계절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시적 巫儀에는 기자의례로서 아들을 낳게 해 주도록 비는 <불도맞이>와 산후 3. 7. 100일, 첫돌, 아기가 아플때, 육아의 무병, 양육되도록 기원하는 <아기비님>과 빠져나간 뉘를 불러서 육체속에 들여 이 병을 고치는 치병의례로서 <뉘들임>이 있다. 그리고 홍역의 발진이 거의 가라앉을 무렵 천연두를 앓고나서 17일이 되는날, 홍역 또는 천연두 神을 칭송하는 巫儀로 마마를 가볍게 해준데 대한 감사의례로서의 <마누라배송>, 범접한 잡귀를 협박하여 쫓아내 앓은 병을 치료하는 巫儀로 심방 3~4인이 악기를 치면서 행하는 <푸다시>, 구삼승神이 어린아이의 혼을 탈취해 가려고 하여 병을 주었을 경우, 구삼승을 협박 구축하여 쫓아내는 모의 극적행위로서 병을 치료하는 <구삼승님>이 있다.

당제(부락제)란 각 부락을 차지하여 수호하는 堂神에게 행하는 무의로, 공공적 의례이며 개인적 의례이다. 음력 정월부터 음력 10월 사이에 진행되는 정기적 무의는 매인심방에 의해 집행되는데 부락의 안녕, 생업의 풍요기원, 참가한 각 호별로 가내 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비는 신년제인<신과세제>가 있고, 음력 2월 초하루 해촌에서의 소라, 전복, 미역 등 해녀 채취물의 풍요, 해부의 해상안전을 비는 <영등

환영제>, 음력 2월 13일~15일 사이에 행하는 <영등송별제>인 ‘영등굿’이 있다. 음력 7월 14일, 15일 장마 림 곧 장마의 재기를 시도해서 조를 중심으로 잡곡의 성장을 비는 천우조절의례<마블림제>가 있고 가축의 증식을 비는 <백중제>가 있으며, 음력 9월 10월 추곡의 수확 후, 새 곡식으로 제물을 마련하여 기원하는 시만국대제가 있다.

堂祭의 날짜와 당굿의 명칭은 마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위 보고된 巫儀式은 <정월의 사대제일(四大祭日)>이라 하여 제를 베풀었다. 당제의 임시적 무의는 부락에 불운이 계속되는 경우, 개인별로 출산, 질병, 불운 등의 기회를 택일을 해서 당에 가서 기원을 한다. 기회에 따른 가제와 당제의 분류는 정기적, 임시적, 개인적, 가정적, 부락적으로 나뉘어진다.

<표 2>



상기 결과 분석표에 의하면 제주도의 무의식은 그 규모에 따라 굿과 비념으로 구분된다. 굿이란 巫覡이 전무악기(징, 평과리, 북, 장고)를 울리면서 가무로서 집행해 나가는 규모가 큰 의례이며, 비념이란, 무격 1인이 무악기를 쓰지 않고 巫舞도 없이 기원을 주로 하는 단순한 의례로, 무복차림의 하지 않고 요령만을 흔들면서

기원사설을唱하며 1시간 내외로 끝내는 간단한 의례이다.

굿은 의례 규모의 大, 小에 따라 작은 굿과 큰 굿으로 나뉘어진다.

작은 굿은 어느 神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의례로 무악기를 전부 사용할 때는 舞가 있고 일부(북, 장고)만 사용할 때는 舞가 없다. 巫覡이 2~5인이 필요하며 하루시간이 소요된다.

큰 굿은 모든 神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의례를 연속적으로 모두 행하는 일종의 종합의례로 민간에서 3년마다 행한다. 전무악기를 사용하여 巫覡이 5~6인이 필요하며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굿과 비념의 목적이 人間 생전의 기자, 육아, 초복, 치병, 사후의 樂地薦度로 집약되며 구분기준은 무악기의 반주와 춤의 사용 여부에 있다. 巫覡이 점측, 교섭을 기도하는 대상에 따른 무의의 유형이 인간의 魂에 대한 의례와 神靈에 대한 의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유감주술의례 :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소망과 같은 것을 의례속에서 전개하여
현실적 성과化를 기대하는 의례
- * 심혼주입의례 : 魂이 이탈하여 생긴병을 다시 육체로 불러들여 안정시키는 치료 의례
- * 협박구축의례 : 질병, 재앙이 원인이 되는 사악한 신령이나, 요괴를 협박하여
쫓아내는 방식
- * 기원유화의례 : 神을 청하여 간절히 기원함으로서 신의를 유화시키고 성취하려는 방식
- * 무 혼 의례 : 死者의 영혼을 위무하여 저승극락으로 보내는 사령공양의례가 있다.

<표 3> 총체적 巫儀의 분류

機 會	規 模	巫覡이 접촉교섭을 기도하는 대상에 따른 분류
일반제 (가제)	-정기적 巫儀- 가정적의례다 .문전제 .칠갈이 .맹감코스 .요왕제 -임시적 巫儀- 개인적의례다 .불도맞이 아기비님,넋들임 마누라배송, 푸다시,구삼승념	비님 .치병의례 .푸다시 .비님굿 .마누라배송 인간의 魂에 대한 의례 (영혼관) .심혼주입의례 넋들임 ↳ 습속으로서 넋들임 ↳ 비님형식의 넋들임 ↳ 굿형식의 넋들임
당제 (부락제)	-정기적 巫儀- 공공적의례다 .신과세제 .영등굿 .마블림제 .백중제 .시만국대제 -임시적 巫儀- 개인적의례다. .부락이 불운이 계속되는 경우 .개인별로 출산. 질병. 불운등의 기회에 기원	굿 -단독의례- (작은 굿) .일부신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불도맞이. 일월 맞이. 시왕맞이 칠성제.맹감풀이 성주굿 서낭풀이.양풀 이. 산신굿 뒷맞이.요왕맞이 연신맞이 당굿. 신굿 -종합의례 (큰굿) 모든신령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의례를 연속적으 로 모두 행하는 의례. 신령에 대한 의례 (신령관) 1.협박구축의례 새드림, 푸다시, 두린굿, 구삼승념, 칠성새남 2. 무혼의례 시왕맞이 요왕맞이 ↳ 무혼굿 ↳ 풍어굿 귀양풀이 3. 기원유화의례 초감제.일월맞이.이공맞이 본풀이 제차 등 4. 유감주술의례 불도맞이(소제차인 서천꽃 놀이) 세경놀이.영감놀이.산신놀이 전상놀이.거무영청굿.그물코 스.연신맞이

2) 單獨儀禮

단독의례의 곳으로는 불도맞이, 일월맞이, 시왕맞이, 요왕맞이, 서낭풀이, 칠성제, 땡감풀이, 성주굿, 연신맞이, 귀양풀이, 산신굿, 뒷맞이, 푸다시, 비넘굿, 마누라배송, 당굿, 신굿이 있다. 이 작은굿은 그 주대상신의 젓상을 하나만 차려 놓으며, 집에서 굿을 할 경우, 방안에 큰 젓상 하나만을 세워서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여 행한다. 이 제상을 '탁상'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설비로 행하는 굿을 '탁상굿'이라고도 한다. 단독의례 그 각각의 形態를 의례의 주대상神, 構成, 巫歌 및 巫服의 쓰임,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4).

<표 4> 단독의례 제의적 형태

단독의례	祭神	儀禮의構成	巫裝	巫服	形式	舞	* 기호사용
불도 맞이	産育神과 助産神	베포침+A+B+C+D+E+M+I+N+F+L+S	삼신불도합판, 저승, 이승, 동해용궁, 홍진국, 마누라신화상.	도포, 섬수차림.	기자의례 유감주술의례	0	A: 諸神 (제의의 장소, 날짜, 연유 포함) B: 降神 C: 託宣 D: 占同 E: 供宴 또는 하정 F: 祈願 G: 神 놀림 H: 불교석체의 기자의례 I: 來臨路청소 J: 神 맞이 K: 꽃담 또는 서천꽃길 L: 할망다리농수룩 M: 아드림 N: 들어가는 말미(본풀이)내력당=비념 O: 공양의례 P: 액막이 Q: 逐邪 R: 송신사 S: (도진) T: 차시명질침 U: 비념 V: 푸다시 W: 감가름
일월 맞이	日月神	베포침+A+B+C+D+E+M+D+Q+S	일월신화상	섬수차림	기원유화의례	0	
사왕 맞이	十王과 差使	베포침+A+B+C+D+E+F+N+J+F+P+T+Q+S	16차사 신화상 회심곡	군복차림 적배지부착	사자공양제 무혼의례 치병의례	0	
요왕 맞이	龍神	베포침+A+B+C+D+F+J+(원혼달렘)+死靈의 영개울림+진혼)+F+P+T+Q+S+(死靈)	요왕신화상	군복차림	사자공양제 무혼의례 치병의례	0	
서낭 풀이	도깨비신	A+B+C+D+E+G+V+서낭좌정+S	서낭무가	수심방·군복차림 소 무: 영감분장	유감주술의례 치병의례	0	
칠성 제	北斗七星	베포침+A+B+C+D+E+J+D+E+S	칠성神무가	도포차림	육아의례	0	
맹감 풀이	農神 수렴신	A+B+C+D+E+Q+N+F+U+S	농신세경신화상	수심방·섬수차림 소 무: 농부차림	유감주술의례 농경의례	0	
성주 굿	성주神	베포침+A+B+C+D+E+N+D+N+S	문전무가, 성주무가	수심방·섬수차림 소 무: 강태공목수	유감주술의례 벽사진도의례	0	
연신 맞이	船王	A+B+C+D+E+G+N+서낭좌정+F+S	서낭무가	섬수차림	유감주술의례 벽사진도의례	0	
귀양 풀이	差使	A+B+C+D+E+G+F+S	차사신화상	군복차림	무혼의례 사자공양제	0	
산신 굿	山神	A+B+C+D+E+G+F+S	산신무가	수심방·섬수차림	유감주술의례 벽사진도의례	0	
뒷 맞이	諸神	A+B+C+D+E+S		섬수차림	기원유화의례	0	
푸다시	범접한神	A+B+C+D+E+S+		평복차림	치병의례	X	
비념 굿	山神	U		평복차림	치병의례	X	
마누라배송	痘神	N(할망)+N(마누라)+W	삼신할망, 신화상 痘神, 신화상			X	
당 굿	본향당神	베포침+A+B+C+D+E+F+G+J+P+Q+S	본향당 神	평복차림		0	
하직굿(신굿)	巫祖上神		신화상	평복차림		0	

상기 분석에 의한 巫儀式의 내용 및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도맞이 -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祈子제의

(2) 일월맞이 - 가족의 수명장수와 행운을 축원하는 제의

(3) 시왕맞이 - 亡人の 천도를 위한 제의

이 굿은 死後 3년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重病을 앓을 때도 冥府의 十王에게 사람을 잡아가는 差使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는 부탁으로 十王굿을 한다.

(4) 요왕맞이 - 龍神에게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굿

(5) 서낭풀이 - 선주와 선원이 합동으로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어촌의 제의.
개인이 아플때도 서낭(도깨비)神에게 치병을 기원하고 이 신을 바다로 拜送한다.

(6) 칠 성 제 - 육아의 무병과 수명장수를 위한 제의

(7) 멩감풀이 - 매년 정초에 가내의 除厄招福을 위해서 하는 안택 祈福祭

(8) 성 주 굿 - 이사가거나 집을 새로 지어서 들었울 경우, 3년 이내에 성주神을 봉안하고 祈福 防厄을 기원하는 제의

(9) 연신맞이 - 배를 새로 지어 進水시킬 때 해상의 안전을 비는 제의

(10) 귀양풀이 - 死者의 시체를 이장한 날 밤에 喪家에서 亡人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는 제의

(11) 산 신 굿 - 매년 정초에 于馬의 번식을 기원하는 제의

(12) 뒷 맞 이 - 굿을 한 7일 이내에 금기의 해제를 위해서 하는 굿. 즉, 聖에서 俗으로의 還元 제의

(13) 푸 다 시 - 치병의 목적으로 하는 약식 제의

(14) 비 념 굿 - 인간 생전의 기자, 육아, 초복, 치병, 사후의 樂地薦度を 기원하는 제의

(15) 마누라배송 - 천연두 환자를 위해 마마신을 보내는 제의

(16) 당 굿 - 洞神에게 마을을 수호와 풍요를 비는 제의

(17) 하직굿(신굿) - 巫覡이 아들에게 사제권을 세습시키고 물러날 때 巫祖上神에게 하직을 고평하는 굿인 동시에 그 代를 물려 받는 사람은 심방이 되는 성무제의.⁶⁾

3) 綜合儀禮

종합의례인 큰 굿은 많은 신령을 대상으로 하는 제의이다. 따라서 방안에 탁상을 차려 놓을 뿐 아니라, 상방(마루방)의 네 벽에 선반을 매어 제물을 올려서 제단으로 삼는데 이 선반을 당클이라 한다. 제단 설비의 大, 小에 따라 당클이 쓰여 지는데 4개의 당클을 설비하면 '4당클 굿' 3개의 당클을 설비하면 '3당클굿'이라 구분하여 제의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종합의례의 절차를 주 대상신과 의례의 구성 및 착용무복과 무가 그리고 형식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김태곤. 한국무속양서Ⅳ. 집문당. 1984. p.352-353.

〈포 5〉 종합의례 제의적 형태

祭順	祭次名	祭神	儀禮의構成	巫歌	巫服	形式	舞	* 기호사용
1	초감제	祭神	베포도업침+A+B+C+D+E+F+G	천지개벽, 인문역사발생, 서우젯소리	A: 관디차림 + 팔짱거리 B: 관디차림 G: 군복차림	종합 청신의례 (기본형식의례)	0	A: 諸神 (제)의 장소, 날짜, 연유포함) B: 降神 C: 託宣 D: 占同 또는 E: 供養 하정 F: 祈願 G: 神 놀림 H: 불교적제의 기자의례 I: 來臨諸神소 J: 神 맞이 K: 꽃담 또는 서천꽃질 L: 할망다리농 아드림 M: 수록 N: 들어가는 말미(본풀 이)내력당=비 O: 비님 P: 공양의례 Q: 액막이 R: 逐邪 S: 중신사 (도진) T: 차사형질참 U: 비님 V: 무다시 W: 갑가름
2	초신맞이	同上	同上			同上	0	
3	초상제	同上	同上			同上	X	
4	불도맞이	産育神과 助山神	초감제 (베포도업침+A+B+C+D+E+F+G) +H+I+J+K+F+L+G	삼신불도할망, 저승 이승·동해용궁, 홍 진국마누라신화창	초감제: 도포차림 H: 관디차림	단독의례 (영신의례)	0	
5	일월맞이	日月神	초감제+M+I+J+F+G		관디차림	同上	0	
6	초공본풀이	巫祖神	A+N+O	巫祖神 조공의 신화창		단독의례 (신화의례)	X	
7	초공맞이	同上	초감제+M+I+J+F+G		관디차림	단독의례 (영신의례)	0	
8	이공본풀이	呪花擔當神	A+N+O	서천서여국에서 인 간의 生變化를 담 당하는 이공의 신 화창		단독의례 (신화의례)	X	
9	이공맞이	同上	초감제+M+I+J+F+G		관디차림	단독의례 (영신의례)	0	
10	삼공본풀이	(전상)神	A+N+O	삼공신화창		단독의례 (신화의례)	X	
11	젯상제	諸神	초감제		관디차림	청신의례	0	

祭順	祭次名	祭神	儀禮의 構成	巫歌	巫服	形式	舞
12	시왕맞이	十王과差使	초감제+I+J+F+N+F+P+Q+G	16차시본풀이 회심곡	초감제: 군복차림 I: 군복차림 + 적배지부착	단독의례 (영신, 신화, 공양 의례)	0
13	세경본풀이	農神	A+N+O	농경神 세경의 신화창	수심방: 관디차림	단독의례 (성극, 신화의례)	X
14	삼공맞이	(전상)神	초감제+I+J+R		수심방: 관디차림 실 방: 장님부부 로 분장	단독의례 (성극, 영신의례)	0
15	세경놀이	農神	조파중+성장+수확과정실연		수심방: 관디차림 심 방: 농부차림	단독의례 (성극의례)	X
16	문전본풀이	門神	A+N+O	門神의 신화창		단독의례 (신화의례)	X
17	본향드리	部落守護神	A+J+E+F	부리수호신 신화창		단독의례 (영신의례)	0
18	각도비님	家宅內祭神	A+E+F	부엌의 조왕, 고팡 의 칠성, 五方力士 神, 주북지신 신화창		단독의례 (기본형식의례)	X
19	물놀이		神들이 타고갈 말을 몰아넣는사설	이러한 내용을 노래		송신의례	X
20	도진	諸神	S	신들을 위계순으로 부르며 돌아가도록 하는 노래		종합송신의례 (기본형식의례)	X
21	기수리	雜神	A+E+L			송신의례	X
22	뒗맞이	祭神	A+B+E+S			종합송신의례 (기본형식의례)	X

제주도의 굿은 우주의 模型으로 당클을 만들고 모든 신을 일제히 모셔 들이는 「초감제」로 부터 시작하여, 請神, 饗宴, 기원하고 맨 마지막에 神들은 일제히 송신하는 과정으로 되어있다. 이 기본형식의 각 과정은 의례의 목적, 신령의 성격등에 따라 언어표출(神話)위주, 무용표출 위주, 극적행동표출 위주로 분화독립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기본의례형식인 비념을 다양하게 확대 분화 시키고 다시 종합한 것으로 <종합청신의례>와 ‘풀어+맞이’, ‘풀어+놀이’의 이중구조 형식으로서 의례의 순서는 신격의 계위순에 따라 진행되는<개별의례>, 굿이 끝났으므로 모든 신을 일제히 보내는 <종합송신의례>로 되어있다.

굿의 전체적인 형태는 기본형식인 「초감제」 「본풀이」 「맞이」 「놀이」의 형식을 취하며 歌. 舞. 劇에 의한 표출기법구조와 무구, 무악기, 무장의 의례 제반사항에 의해<종합청신의례>, <개별의례>, <종합송신의례>의 구성을 갖는다. 위 결과에 의하면 종합의례는 단독의례를 종합화한 것으로 제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초감제

「초감제」는 제일이 되면 巫覡 4~5인이 백지에 여러가지 모양을 오려 1m 정도의 뗏가지에 달아맨 것으로 神 또는 神의 빙의물의 관념인 기메를 만들고 젓상을 마련한다. 젓상은 상방(마루방)의 네벽의 선반을 만들어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기메를 걸어 놓는다. 이를 사당클이라 한다. 4~5m의 큰대(長竿)를 마당에 세워 정상에 솔잎, 또는 동백가지를 묶어매고 신령의 양식이라 해서 쌀자루와 요령을 매달고 긴 무명을 큰대와 집안의 젓상에 연결, 神의 天上에서 큰대를 통하여 수직적으로 하강시키고 다시 무명(드리)를 통하여 제청으로 모셔들이는 청신과정이다.

왜 굿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딱한 연유, 인간의 간직한 祝源愿情을 신에게 기원하고 신의 의사를 인간에 전달하는 ‘굿의 서장’이다. 연극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구성을 갖는 「초감제」는<베포도엮침> <날국과 섬김> <집안연유 다툼> <군문열림>, <새드림> <오리정> <신청례>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

<베포도업침>은 정장한 수심방이 신칼 요령을 들고 서서 천지혼합으로 부터의 우주의 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의 발생등을 노래로서 설명하고, 제장이 우주의 모형임을 밝히고 우주의 자연 인문사상의 발생배치를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초감제는 한 단락 한 단락의 노래가 끝날때마다 소무가 치는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神을 청신한다. 제장의 공간적 현장성을 나타내는 무대해설과 같은 것이다.

<날국과 섬김>은 굿을 하는 때와 장소를 설명하는 대목으로 시간과 장소의 현장성을 나타낸다.

<집안연유 닦음>은 굿을 하는 문제(병 또는 限)를 신께 아뢰는 ‘문제의 제기’로 왜 굿을 해야 하는가의 실마리를 푸는 것으로 굿의 사회적 기능을 보여준다.

<군문열림>은 신께 바친 인간의 문제가 전달되어 神을 움직이고 신의 뜻이 내림(神明)으로 심방에게 빙신(possession)이 되고 심방의 입을 빌어 神의 의사로 인간에게 전달됨으로서 굿판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 神明을 감연시키며, 신들이 내려오려면 신역의 문이 열려야 될 것이므로 그 문을 여는 장면을 연출한다. 여기서의 춤은 격렬한 춤으로 문이 열림을 표현하는데, 급조의 템포에다 회전난무의 형태를 지낸다. 이러한 수심방의 난폭한 춤으로 극적 긴장을 고조시켜주는 神明의 굿이다.

<새드림>은 神의 내림로는 모든 邪를 쫓는 장면으로 감상기와 물그릇을 들고 부정을 씻는 동작과 신칼을 가지고 잡귀를 물리치는 전투적인 동작으로 ‘정화’를 상징한다.

<오리정>은 五里 밖까지 가서 신을 청해오는 극적 연출 행위로 한다.

<신청례>는 신을 청하여 맞아들여 1만8천 神을 위계순으로 제청에 좌정시킨다.

이로서 초감제는 굿의 맨 처음에 모든 神을 天上에서 큰대를 통하여 지상으로

하강시켜 무명(무리)를 통하여 제청으로 모셔 들여와 제상에 앉히고 제물을 권하고 기원하는 과정으로 歌, 舞에 의한 총합청신의례이다.

(2) 초신맞이

초감제에서 1만8천 신을 청하여 앉혔지마는 떨어진 신령이 없도록 되풀이 하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가 굿을 하여 神들을 청합니다.”고 하고 神門을 열고 강림하는 길의 邪를 쫓고 신들을 청해 들어 좌정시키는 청신의례다.

(3) 초상제

초신맞이 때에도 떨어진 신령을 위하여 행하는 청신의례다.

(4) 추물공연

젯상에 청해 앉힌 신들에게 제물을 잡수도록 권하고 소원을 빈다. 제물의 이름을 하나 하나 들으면서 잡수도록 권한 후, 소원을 간절히 빌고 시령의 의지를 신칼점으로 판단한다.

(5) 석살림

신들을 즐겁게 놀리어 소원을 빈다. 신들에게 술을 권하고 심방, 제주, 가족들이 모두 춤을 추며 신과 더불어 즐기면서 기원하는 것으로 신들과 성스러운 교섭을 하는 의미가 있다.

(6) 보세감상

신들에게 폐백과 증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것으로 무명을 폐백으로 하여 신들에게 바치고 소원을 빈다.

(7) 불도맞이

불도맞이는 개별의례로서 맨처음 행하는 의례로 産神에 대한 기자의례다. 마당에 불도맞이 젯상을 차려 초감제부터 행한다. 초감제에서 産神과 그 권속의 神 만을 청해 들어 공연하고 기원한다.

이러한 초감제를 끝내면 ‘수룩침’이라고 하여 심방이 중의 복장을 하여 祈子하는 불교적 색채의 기자의례를 하고, 다음에 ‘질침(도로청소의 뜻)’이라 하여 産神이 來臨하는 길을 치워 닦아 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를 한다. 이 신맛이가 끝나면 산신의 생명의 꽃(呪花)을 훔쳐와서 祭主에게 주어 잉태하게 하는 유감주술적 의례를 하고 이어서 소지를 올려서 기원한다.

(8) 일월맞이

일월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이다. 초감제를 한 후 ‘질침’을 하여 신을 맞아들여 기원한다.

(9) 초공본풀이

巫祖神 초공의 신화를 노래하고, 그 신화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소원을 들어 주도록 기원한다.

(10) 초공맞이

巫祖神을 맞아들여 기원한다.

(11) 이공본풀이

서천꽃밭의 呪花를 관장하는 神인 이공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한다.

(12) 이공맞이

이공神을 맞아들여 기원한다.

(13) 삼공본풀이

‘전상’을 차지하는 神인 삼공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한다.

(14) 젓상계

젓상계는 재차 떨어진 신을 청해 들이는 의례이다.

보통 삼공본풀이까지 하면 첫째날 밤이 깊어서 일단 곳을 중단하고 다음날에 시왕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 날 아침에 시왕맞이하기 전에 젓상계를 한다.

(15) 시왕맞이

마당에 시왕, 차사, 사자등의 젓상을 차려서 행한다. 저승을 차지한 시왕과

그 사자인 차사를 맞아들여 기원하고 死靈을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이다. 이 의례에는 시왕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외에 차사의 신화를 노래하고 원혼을 달래고, 사자의 영개울림과 진혼을 하고, 액막이등, 여러가지 의례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으나, 이 부차적인 의례를 제외하면 형식은 다른 맞이굿과 같다.

(16) 세경본풀이

농축神 세경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한다.

(17) 삼공맞이

‘전상’을 차지한 神인 삼공을 맞이하여 그 神으로 하여금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극적 의례이다. 이 의례는 다른 맞이굿과 같이 춤으로서 ‘질침’을 하여 신을 맞아들여 기원한다.

(18) 세경놀이

세경이란 農神을 이르는 말이다. 이 무의는 밭을 갈아 좁씨를 뿌리고 그 조가 자라 이삭이 여물어 거두어 들이고 창고에 저장하는 과정을 연극적으로 실연하는 의례이다.

(19) 문전본풀이

門神의 신화를 노래하고 가내 안전을 비는 의례로 초공본풀이와 같은 형식으로 노래불러진다.

(20) 본향드리

부락 수호신인 본향당신을 맞아들여 기원한다.

(21) 각도비념

각도비념은 부역의 ‘조왕’, 고팡의 ‘칠성’, 집터를 지키는 ‘오방방토신’ 집의 출입로의 신인 ‘주목지신’ 등 울타리 안의 여러부분을 차지한 신들에게 각각 기원한다.

(22) 말놀이

말놀이는 여러 신들이 타고 돌아갈 말을 태우는 의미의 의례로 근래에는 이 제차가 행하지는 않는다.

(23) 도진

소위 1만 8천 신을 모두 보내는 의례로 신들의 위계순으로 神名을 불면서 돌아가십사고 노래 부르는 것이다. 十王 이상의 위계의 신들을 세경놀이 직전에 돌아갈 준비를 시키는 의례인 ‘양궁숙임’을 하고 사령에게는 각도 비님이 끝나면 돌아가게 하는 의례인 ‘영개돌려세움’을 한다.

(24) 가수리

신들이 돌아간 후, 남아 있는 각종의 잡귀를 대접해 보낸다.

위 제차 사이에 날짜가 바뀔때 마다 神들은 起床시키고 세수시키는 의례인 ‘관 세우’를 하고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海神을 맞아 모시는 ‘요왕맞이’라든가, 도채 비(도깨비)에게 범접된 병을 치료하는 영감놀이, 수렴의 풍요를 비는 ‘산신놀이’ 등 의례를 가감한다.

종합의례인 큰굿은 위 의례 내용으로 人間 생전의 기자, 육아, 초복, 치병, 사후의 樂地薦度로 집약, 이를 기원하고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動作分析

1) 춤 動作 分析

제주도 굿의 춤사위는 크게 <신맞이 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모듬춤사위> <어깨매고 뿌려 내리기 춤사위> <단쌍기 춤사위> <팔에 걸치기 춤사위> <옆으로 뿌려 어깨에 매기 춤사위> 등이 있으며 발사위로 구분하여 <감장도는 춤사위> <원그리고 춤사위> <도랑 춤사위> <앞 춤사위> <뒷 춤사위> <청하는 춤

사위>가 있다.

그리고 발 사위를 사용하지 않고 상체의 움직임만을 하는 <뿌리기 춤사위>, <어르기 춤사위>, <술병들고 춤사위>, <손가락 춤사위> 및 일정한 동작과 장단없이 역가를 올리는 춤인 <낙하실이떡 춤사위>가 있다.



(사진 1) 神맞이 춤사위(청하는 춤)

(사진 1) 신을 청하는 춤으로 공손한 태도로 양손에 신칼을 들고 추는 춤으로 왼손의 신칼의 지전 부분을 오른쪽 어깨에 던져서 걸치고 오른손의 신칼을 손목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면서 몸을 안쪽으로 돌린다. 왼팔을 오른쪽 어깨위로 던져 올리면서 왼발을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팔을 밑으로 내려다가 중심이 왼팔로 완전히 이동되고 오른발이 왼팔 안쪽으로 나갈때 들어올려 오른발을 옮길때 오른쪽 손목을 밖으로 뿌리치면서 한바퀴 돈다.



(사진 2) 감장도는 춤사위

(사진 2) 손짓없이 도는 것과 팔을 몸 앞에서 상하로 흔들면서 도는 동작이 있는데, 도는 방법은 왼발을 축으로 하여 오른발로 조절하면서 돌고, 반대로 오른발이 축이되어 왼발을 조절하면서 제 자리에서 도는 것을 말한다.

손짓없이 도는 방법은,
양팔을 아래로 모아 방향을 잡고 양팔의 팔굽을 굽혀 위로 들고 오른발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에서 맴돈다. 이러한 동작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다 정면으로 감깐 멈추는 동시에 왼쪽 손목을 오른쪽 가슴쪽으로 돌려 방향을 바꾸어 왼발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 맴돌기를 한다.

양팔을 몸앞에서 상하로 흔들면서 도는 방법은,
정면으로 서서 두팔의 팔굽을 구부려 앞으로 하고 하나에 호흡을 들면서 발굽을 들었다 굽힐 때 앞으로 들고 있던 팔도 같이 들었다고 놓는다.

이런 방법이외에도, 오른손으로 감상기를 왼손에 든 주발물을 찍어 뿌리며 왼쪽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바퀴돌고 앞으로 나오고, 어깨어 걸쳤던 것을 앞으로 빼면서 다른 손으로 지전부분을 쥐고 시계방향으로 돈다.



(사진 3) 모듬춤사위



(사진 4) 팔에 걸치기 춤사위

(사진 3) 양손에 바랑과 신칼을 들고 앉아서 양팔을 앞으로 들고 제자리에서 일어서나. 정면으로 두 손을 앞으로 하고 일어난 다음 왼팔을 사선뒤로 방향을 틀고 팔을 옆으로 돌려 몸 방향을 돌린다. 왼발을 벌려 던고 두 팔을 몸 앞으로 던져 올려 손목을 꺾어 앞으로 뿌리고 벌린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모으고 두손을 모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한다음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뒤로 돌아서면서 앞에 있던 두팔을 앞으로 모아 가슴 밖으로 뿌리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두팔을 아래로 내리며 뒷걸음하면서 몸을 돌린다. 뒤로 완전히 회전하면서 앞에 모았던 양팔을 몸 옆으로 펴 들어서 굽혔던 상체도 정면으로 펴든다.

(사진 4) 오른손을 틀어 약간 오른쪽 앞으로 뿌려 펴고, 왼손을 오른손 쪽으로 뿌려돌려서 신칼을 오른손 팔목에 걸치고, 왼손을 약간 왼손 앞쪽으로 뿌려 펴고, 오른손을 왼손쪽으로 뿌려서 신칼을 왼손 팔목에 걸친다. 이 춤사위는 신을 어르는 행위라 한다. 왼쪽으로 돌때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뿌려돌려 올려 놓는다.



(사진 5)



(사진 6)

(사진 5, 6) 옆에서 뿌려 어깨에 매기 춤사위

(사진 5) 양손을 옆위로 휘둘러 내렸다.

(사진 6) 어느 한 손을 반대쪽 어깨에 댄다. 이러한 동작을 반대 방향 어깨에 댄 동작을 하면서 반복한다.



(사진 7) 뿌려 어깨에 매고
뿌려 내리기 춤사위



(사진 8) 단 쌓기 춤사위

(사진 7)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딛는 동시에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붙이고, 손은 오른팔을 위로 뿌려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이어서 앞으로 뿌려 내린다. 왼발은 왼쪽으로 딛는 동시에 오른발을 왼발 옆에 붙이고 왼발을 왼쪽 어깨에 매고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구부렸다 가슴밖으로 뿌리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사진 8) 이 춤사위는 도량춤에 들어 가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하는 춤사위로서 왼쪽에 원을 그리면서 원그리기를 한다. 왼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고 왼팔이 아래로 내려오며 손에든 감상기가 아래로 쳐지지 않는다. 왼팔을 왼쪽 어깨에 매었다 뿌리고 오른쪽 팔을 오른쪽 어깨에 얹었다 뿌리면서 왼쪽 시계 반대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고 한 바퀴 돈다.



(사진 9) 원그리기 춤사위



(사진 10) 도량 춤사위

(사진 9) 앞으로 굽혔던 상체를 펴고 아래있던 양팔을 위로 든다. 양팔을 가슴넓이만큼 옆으로 벌려서 정면 방향으로 도는데 왼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맴돌고 오른손을 앞으로 돌려 오른발을 축으로 맴돈다. 몸을 북쪽 방향으로 돌려 큰 원을 돌며, 팔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빠르게 뒀다.

(사진 10) 토끼 편을 뛰듯이 두 발을 모아서 오른쪽 먼저 안쪽으로 뛰다가 이때 두 팔은 몸이 뛰어 위에 있을때 위로 들었다 두발이 오른쪽에 착지하면 두팔은 몸의 왼쪽으로 동시에 내리고 두발이 왼쪽으로 뛰어 착지하면 두팔도 오른쪽으로 동시에 내린다.



(사진 11) 앞 춤사위



(사진 12) 뒷 춤사위

(사진 11) 오른쪽 사선으로 몸을 정면으로 하고 발을 옆으로 딛으면서 지그제그 형식을 하고 양손은 따로따로 오른쪽으로 갈때는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밑으로 내려 오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이 몸 앞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좌측방향이 된다. 왼발을 왼쪽 사선 뒷방향으로 무릎을 굽혀 빼면서 손목을 돌려 왼쪽 가슴앞으로 당긴다. 몸은 서쪽 방향으로 하고, 발의 디딤은 옆으로 하여 정면으로 나아 가면서 팔은 몸 앞으로 들어 올려서 나온다.

(사진 12) 감상기와 신칼과 요령을 동시에 쥐고 팔을 아래로 쭉펴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뒤로 뒷걸음질 친다.



(사진 13) 청하는 춤사위



(사진 14) 뿌리기 춤사위

(사진 13) 조심스럽게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서 영기와 문기를 잘들어 흐틀어지지 않게 하여 뒷걸음으로 나가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채 기를 밖으로 하여 한바퀴 돌아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간다.

(사진 14)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칼을 한쪽씩 뿌리고 양쪽을 동시에 밖으로 뿌리거나 안으로 뿌리거나 한다음 신칼을 던져 점을 친다.



(사진 15) 어르기 춤사위



(사진 16) 낙하설이떡 춤사위

(사진 15) 이 춤사위는 제의 절차에 따라 달리 추어진다.

- * 정면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양팔굽치를 바닥에 대고 손에 든 감상기를 위로 향하게 하여 몸을 열린다.
- *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 손에 요랑을 들고 좌우로 밀면서 흔든다.
- *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손의 기를 땅에 세워 몸 양옆에 놓고 몸의 중심을 좌우로 열린다.
- * 자리에 오른발을 세우고, 왼발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바람을 던져 점을 친 다음 신칼 두개를 한데 모아 왼쪽은 칼을, 오른쪽은 지전을 쥐고 오른손을 돌리면서 몸을 열린다.

(사진 16) 백설기 시루떡을 하늘에 던졌다가 받고 또는 서로 주고받는 동작으로 일정한 발동작이 없고 장단이 없다.

2) 巫俗舞의 象徵的 分析

< 초 감 제 >

무용분석 제차	춤의 종류	내용	출사위	춤의 형태	춤의 성격	비고
배포도업침	배포춤	수심방이 젓상앞에서 四拜를 하고 악기 반주에 맞추어 旣數를 부르며 진행한다. 자연인문 발생상징춤. 양손에 신칼을 들고 사방천지를 열어나가는 과정, 굽을 가르는 동작	신맛이 춤사위, 모듬춤사위, 팔에 걸치기 춤사위, 옆으로 뿌려 어깨에 매기 춤사위,	請神舞	제의적	
군문열림	감상기 들고 추는 춤	임이 있는 수릿대에 영기를 매달고 양쪽끝에 한개씩 감아쥐고 신이 당도하였으니 문을 열고 닫는 내용을 사방의 문을 향해 동작.	앞춤사위, 뒷춤사위, 어르기 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원그리고 춤사위	請神舞	제의적	
군문열림	도랑춤	군문을 지키는 난폭한 사령의 유감추슬적인 춤으로 오리산스럽게 제장을 돌아다니고 펼쳐 펼쳐 펴고 내리하는 神의 모습을 표현, 심방과 神의 일체 표현으로 神을 빙의하는 과정의 춤	回舞, 단싸기 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상하도 앞춤사위, 뿌려 어깨에 매고, 뿌려내리기	請神風舞	유감추슬적	神의 빙의의 과정 사며니즘 영향
세드림	물그릇 들고 추는 춤	神을 청하기 전에 추는 춤으로 모든 邪를 쫓는 장면 연출, 심방이 넓은 종지에 청수기든 물종지 세개를 올려놓은 것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든 댓잎으로 종지의 물을 찍어 사방으로 뿌린다. 제의공간을 정화하는 의미	뿌리기 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모듬 춤사위	逐鬼舞	제의적	
	신칼과 실 들고 추는 춤	1인8천신을 사방에서 구정으로 포이도록 하기 위해 춘다. 신칼로 부정을 씻게 하고 쌀을 사방에 뿌린다.	뿌리기 춤사위, 원그리기 춤사위, 팔에 걸치기 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請神舞 逐鬼舞	제의적	
	향로춤	상축권상에서 향불로 부정을 씻는 동작후, 향로를 들고 신을 따라오게 한 다음, 神이 오면 오신하는 춤을 춘다.	외손에 향로, 오른손에 요랑, 모듬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請神舞 旗神舞	제의적	
신청개	신청개춤	1만 8천神을 맞이하여 위계순으로 굿청에 좌정시키는 동작	모듬춤사위, 원그리기 춤사위, 팔에 걸치기 춤사위	請神舞	제의적	
석실림	술잔 들고 추는 춤	神들을 즐겁게 놀리며 술잔을 권하는 동작	모듬 춤사위, 감장도는 춤사위	請神舞 祝願娛神舞	제의적	

< 불도 맞이 >

무용분석 제차	춤의 종류	춤의 내용	춤사위	춤의 형태	춤의 성격	비고
꽃 탐 =서천꽃질	구할망춤	수심방이 구심심할망 請하면 청호지 탈을 쓰고 흰 갈증이 치마에 지팡이를 짚고, 구친상차통을 흑멸향으로 지고 제장으로 들어오는 mime적인 춤	특정춤사위는 없고 mime으로 구심심할망을 상징		신의행동 표현. 유감주술적	
	아심꽃들고 추는 춤	저승할망 꽃을 꺾는 내용을 춘다. 대나무잎과 잠초를 가지고 축귀를 목적으로 한다.	특정춤사위가 없 이 자유자제로 춘다.	逐鬼舞	유감주술적	
	동백꽃 들고는 춤	물그릇을 머리에 이고 동백꽃을 들고 서천꽃밭에 물을 주는 생산의례적 내용을 춘다.	특정춤사위가 없 이 자유자제로 춘다.	祝願舞	신의행동 표현. 유감주술적	
	철죽대 들고는 춤	몽둥이를 들고 '불도 할머니 흥내를 내는 연극성이 짙은 춤이다.	특정춤사위가 없 이 자유자제로 춘다.		주술적 연극적	
	바라(가지랭이) 들고 추는 춤	바라를 치면서 불도할머니를 娛神시키는 동작	모든춤사위,원그리기춤사위.	娛神舞	제의적	불고적
	할머니 다리 들고 추는 춤 = 무지개 춤	굿창밖으로 부터 불도木에 끌어들이는 할망다리를(무명) 걸어서 심방과 本主가 한 끝씩 잡고 끌어다닌다. 이때 本主가 세게 끌어다녀 심방이 잡은 끈을 뺏아야야 포태가 잘된다 믿는다. 불도 할머니 방으로 영집때 환전을 들고 흔들어 오신하는 춤.	없으로 뿌려, 어깨에 매기춤사위. 단쌍기와 감장도는 춤사위.	娛神舞	제의적	

무용분석 제차	춤의 종류	춤 의 내 용	춤 사 위	춤 의 형 태	춤 의 성격	비 고
내림로청소 (질 침)	질 치 기 춤	① 좌우뚫길 돌아볼 神의 내림할 길울(땃가지문 틈새)돈다. ② 언설도로베기 신칼을 가지고 초목을 베는 시농 동작 ③ 작대기 들고 추는 춤 배어놓은 초목을 정리하는 동작 ④ 따비들고 추는 춤 잡초목의 뿌리를 따비(농기구)로 파내는 춤 ⑤ 발로 고르기 파낸 자국의 흙을 발로 평평하게 밟아 고르는 시농의 춤 ⑥ 삼태기로 치우기 구르는 돌맹이를 굴리고 치우는 시농을 춤 ⑦ 미태깃대로 고르기 지면이 울퉁불퉁하여 밀대로 밀어 고르는 시농 춤 ⑧ 광관세들고 추는 춤 풀을 땅에 끼는 시농의 춤	특정춤사위가 없 이 소로 작업을 동작화 하였다.	請 神 舞 勞 動 舞 연극적 mime		
		⑨ 나무다리 들고 추는 춤 종이로 나비를 작게 만들어 여러개 가지고 娛神 행위를 춤추다가 나비를 방생한다는 뜻 으로 공중에 던진다.		娛 神 舞	제 의 적	

<시왕맞이>

무용분석 제차	춤의종류	춤의내용	춤사위	춤의형태	춤의성격	비고
<초감제> 베포도엄침	베포춤	수심방이 찻상앞에서 四拜을 하고 악기 반주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춘다. 자연인문 발생 상징춤, 양손에 신칼을 들고 사방천지를 열어나가는 과정, 굽을 가르는 동작을 한다.	팔에 걸치기 춤사위, 신밧이 춤사위, 감강도는 춤사위, 뿌려 어깨에 매고 뿌려내리기 춤사위	請神舞	제의적	
군문들아보고 군문열림	十포맹감令旗들고 추는 춤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추다가 神이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이때 삼방은 감상기와 문기 영기를 들고 노래와 춤으로 그 문이 열림 표현, 격렬한 춤으로 음악템포가 빨라져 좌, 우 회무와 상하도 악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잡귀의 범접을 막기 위한 전투적 행위를 한다.	앞 춤사위, 원그리기 춤사위, 어르기 춤사위, 청하는 춤사위	請神鬼舞	유감주술적	
부정고개	감상기와 물그릇을 들고 추는 춤	제의 공간 정화 의미로 추어진다. 감상기와 물그릇을 들고 부정을 씻는 춤으로 종지에 물을 댄가지로 적어 사방으로 뿌린다.	뿌리기 춤사위, 모듬 춤사위	逐鬼舞	제의적	
새드림	신칼춤	신칼을 가지고 잡귀를 물리치는 동작	뿌리기 춤사위	逐鬼舞	제의적	
신청개	신칼과 쌀을 들고 추는 춤	신칼과 쌀을 가지고 춤추면서 쌀을 사방으로 뿌려 신들을 포이도록 유도하는 동작	뿌리기 춤사위, 원그리기 춤사위, 팔에 걸치기 춤사위, 모듬 춤사위	請神舞	제의적	
팔만대신경	감상기와 요령을 들고 추는 춤	감상기와 요령을 들고, 흔들어 사방에 있는 여러 신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단 쟁기를 하는 춤이다.	단 쟁기 춤사위	請神舞	제의적	

무용분서 제차	춤의 종류	춤의 내용	춤사위	춤의 형태	춤의 성격	비고
낙하실이 놀림	나까시리놀림 = 떡춤	차사를 즐겁게 놀리게 위해서 떡 시루를 공중으로 던지거나 신칼을 가지고 추는 춤. 오락적 희극놀이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낙하실이 떡춤 시위	請神舞	제의적	
차사령맞이	차사령 질치기춤	심방이 회심곡을 부르고 나서 亡人이 저승의 가시門으로 가는 과정을 연기, 저승門 12개를 만들어 세워놓고 심방이 연불을 하며 하나 하나 지워감 ① 저승지옥문을 돌아보는 춤 ② 저승문을 여는 춤-넋가지 문의 틈새를 춤추면서 든다. ③ 잡초를 캐는 춤-신칼을 가지고 베는 시능의 춤 ④ 길을고는 춤 - 신칼을 가지고 잡초목을 정리하고 뿌리를 파내며, 파낸 자국의 흙을 평평하게 밟아 고르며, 구르는 돌맹이를 삼태기로 날라 치우고 지면이 울퉁불퉁하니, 밀어고르는 시능의 춤 ⑤ 먼지를 쓸어내는 춤-신칼치마로 쓸어내는 동작 ⑥ 길에다 물을 뿌리는 춤 - 술을 한모금 뿜는다. ⑦ 잡초를 길에 깔아 곰개 가꾸는 춤 - 띠를 질러 다 조금 뿌린다. ⑧ 사람을 나비로 환생시키는 춤 - 백지조각을 뿌려 놓는다. 그 위에 흰 무명을 깐다. ⑨ 밟는 시능을 하는 춤 ⑩ 신에게 떡을 청하는 춤 ① 저승실이 대문을 돌아보는 춤 사령과 차사가 발방울 소리를 울리며 내림함을 상징으로 심방이 요령소리를 내며 그 길을 뛰어다닌다.	문앞에서 앉은자세 . 양손어깨에 걸쳐 뿌리내리기 . 이르기 춤사위 . 손목춤 . 뿌리기 춤사위	請神舞 勞動舞 娛神舞 送神舞	mime 연극적 유감주술적	불고적

무용분석 국의 분류	춤의 종류	춤의 내용	춤사위	춤의 형태	춤의 성격	비고
성주굿 (강태공수목수)	도끼들고 추는 춤	강태공 수목수를 청하여 나무를 베게하는데 추어 지는 별목행위. 심방이 목수처럼 도끼를 메고 산속으로 들어가 木林을 베어다 집 짓는 과정을 극적으로 연기하여 모형집을 짓는 동작 집안의 기둥. 대들보. 서까래를 돌아다니며 도끼로 찍고 마지막으로 생깃 지붕에 묶어놓은 (성춌대) 대를 찍어 끊어 제목을 끌어내리는 시늉	특정 춤사위가 없 이 자유자재로 춘다.	勞動舞	유감주술적 연극적	
서낭풀이 (영감놀이중 영감신청)	가면쓰고 햇불 들고 추는 춤 = 영감춤	수심방이 神을 청하면 소미가 영감신의 가면을 써서 직접 영감신으로 분하여 나타난다. 손에는 햇불을 들고 圓舞형태로 춤을 춘다.		諸神舞 假面舞	연극적 유감주술적	도깨비 신앙
산신굿 (산신놀이중 分肉)	칼춤	산신에게 향응을 배풀기 위한 춤으로 칼에 고기를 꿰어들고 춘다. 칼을 내던져 칼날의 방향을 보아 수렵의 풍요를沾친다.	특정 춤사위가 없 이 자유자재로 춘다.	娛神舞 祝願舞	유감주술적 占術的	

이상의 분석표를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 제주의 巫俗舞는 무속의식의 기능에 역점을 두어 제차에 따른 심방의 歌, 舞 기술을 통하여 신령과 융합하는 체험을 하고 심방과 회중이 즐겁게 춤을 춤으로서 신을 놀리어 神의 뜻을 움직이고 神이 과거의 역량이 굿판에서 실연하는 功利的인 것으로 추어진다. 심방이 구사하는 다양한 춤은 인물을 典型化하고, 신의 과거 생활을 재현, 상징하는 춤이며, 제주 도민의 과거 생활, 즉 수렵, 목축, 육아, 가사등, 생활노동의 동작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생생활에 있어서 감정의 표현이며 생활동작의 예술적 모방으로 주술성이 강하고 상징적인 동작이 많다.

巫儀式的 제의적 절차에 나타난 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감제때는 양손에 신칼을 들고 천지의 혼합으로 부터 일월성신의 발생등의 한 단락 한 단락 끝날때 마다 노래가 시작되고 너울 너울 추는 춤은 자연, 인문 발생 표현, 사방천지를 열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신대를 양손에 들고 추는 것은 군문을 열고 닫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땃잎으로 종지물을 사방으로 뿌리는 것은 제의 공간을 정화하는 의미로 모든 邪를 쫓는 장면을 상징한다. 그리고 쌀을 사방에 뿌리면서 춤을 추는 것은 사방의 신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기 위한 상징이며, 回舞할때 왼쪽으로 도는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 이는 전회의 상징이라 한다. 신칼을 어깨에 메고 뿌리는 것은 신을 놀리는 행위이며 신맞이 춤은 신을 인도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감주술적인 동작들은 심방이 사제자로서 의례행위 표현과 신의 신분으로 전환, 신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巫覡이 신을 향해 하는 동작, 곧 의례 집행행위를 율동화한 춤은 신들을 청해 들일 때, 젓상까지 엮어들이는 춤과 제장의 부정을 씻기 위해 향로 들고 추는 춤 및 술을 신에게 올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술잔들고 추는 춤으로 심방이 사제자로서 의례 행위를 표현한 유감주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신들의 현시 행위를 표현하여 産神(삼승할망)이 제장에 들어 오는 것을 할머니 걸음모습으로 나타내고

신이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심방이 쫓아내는 시늉의 춤으로 표현등, 제장에 있어서의 신의 행동을 춤으로 나타내고 있다. 巫覡이 神을 향한 동작, 의례집행을 율동화한 춤으로서 사제자의 의례행위를 표현하고 신의 신분으로 전환, 신의 행위 표현은 초감제의 청신무에 잘 나타난다.

請神舞는 천지혼합으로 부터 천지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인류 역사의 발생, 역사적 사실 발생등 지리, 역사적 설명을 하고 제의 장소, 날짜, 연유등을 순서로 고하고 그 한단락 한단락의 노래가 끝날때 마다 너울 너울 춤을 추는 것으로 자연, 인문사상의 발생을 상징하는 춤을 춘다. 신들의 강림은 청하고 성역의 문을 여는 단락이 되면 춤의 시초로 팔과 다리를 느릿 느릿 움직이며 전, 후, 좌, 우로 천천히 이동하던 동작을 빨리하고 일정 장소의 跳舞가 아니라 좌우회시의 광란적인 동작으로 군문을 지키는 난폭한 사령의 유감주술적인 춤이다. 이때, 악기의 반주는 강타의 급조이며 요란한 도랑 잦은 연물의 리듬이다.

춤의 성격은 “의식적인 ‘전신운동의 결과 일어난 흥분상태’라 설명되며, 통제할 수도 행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는 춤으로서 샤만의 것과 다르다.”⁷⁾ 이 광란적인 동작을 통하여 忘我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격렬한 춤을 통하여 공수를 한다는 점, 祭主나 참가자가 神語로 인정하고 손을 비벼가며 경청하고 존대말로써 이를 받아 대답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빙신의 방법으로서의 舞였다고 보인다. 내림하는 신의 모습을 행동으로 표출, 즉 심방이 신의 행위를 代行하고 신의 심방의 一體 표현으로 신을 빙의하는 과정의 춤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청신무의 모습은 요란스럽고 난폭하며 부리나케 제장을 허청거리며 돌아다님, 펄떡 펄떡 뛰고 숨을 하! 하! 기성을 외치는 동작으로 請神亂舞의 형태를 지닌다.

제주도 巫俗舞는 주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요소 이외에도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 ‘시왕맞이’에서 저승의 길을 치워 닦아 사령을 청하여 慰安하고 저승의 열두문을

7)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례 연구, 제주대학교, 1975. p.88.

열어 극락으로 보내는 의례<질침>에서 천왕문, 지왕문, 인왕문의 3가지 문을 왕래하면서 첩저한 소로작업을 춤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주굿<강태공수목수>에서 수심방이 수목수를 청하여 집을 짓는 과정을 실연하는데 목수로 분장한 심방이 도끼를 들고 山속으로 들어가 木林을 베어와 집짓는 과정을 극적으로 연기하여 모형집을 짓는다. 집안의 기둥, 대들보, 서까래를 돌아다니며 도끼로 찍고 마지막으로 생깃지붕에 묶어있는 성춥대를 찍어 끊어 제목을 끌어 내리는 시늉은 춤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도맞이>에서 물그릇을 머리에 이고 동백꽃을 들고 서천꽃밭에 물을주는 춤인 ‘동백꽃 들고 추는 춤’, 수심방이 구삼싱할망을 請하면 창호지 탈을 쓰고 현갈중이 치마에 지팡이를 들고 구천낭차통을 흑멜빵으로 지고 제장으로 들어오는 주술적이며 mime적인 ‘구할망춤’ 몽둥이를 들고 불도할머니의 흉내를 내는 ‘철죽대 들고 추는 춤’이 그 예라 할 수 있는 연극성이 짙은 의례 춤이다.

이러한 유감주술적이며 연극성이 짙은 상징적인 춤은 등장인물의 성격 및 행동기능을 부각시키고 심방의 가창과 가창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며 신의 威力을 주술적 행위로 과시하고 희극적, 상징적 몸짓이나 연기술로서 그 전개상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스펙트클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명을 돋군다. 춤을 통하여 人物의 전형화를 완성하고 축귀, 재염, 초복, 안택, 진령, 천신 등 새신의식의도로 거행되며, 巫歌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 실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특이성은 대륙지역의 굿춤과 비교할 때 더욱더 드러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술적 의식성이 강한 동작으로 춤 구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굿 춤에 연극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人物’의 典型化를 완성한다.

셋째: 심방이 사제자로서 의례행위를 표현하고, 신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신의 형태 표현에 상징성을 두고 있다.

네째: 제주도 춤 동선은 회전에 있으며 큰 회전, 작은 회전, 제자리 맴돌기 등, 회전에 춤사위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복 회전을 할 때, 한쪽으로 돌아 제자리에 멈춘후, 반대로 역전하는데 이때, 유연한 반전의 형태가 특징적이다.

다섯째: 춤의 형태는 청신, 신맞이, 신놀림, 축귀, 오신, 축원적이고 노동무적으로 mime의 요소가 강하게 띤 연극적이고 제의적인 주술성을 띤다.

여섯째: 불교 내세관의 영향으로 사후 공양의례로 춤이 사용된다.

전반적인 춤 특성은 동작을 규칙적으로 거듭 반복함으로써 주술적인 효과를 고양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춤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포춤>

큰굿의 초감제는 巫歌중간 중간에 主巫가 全樂器伴奏로 天地開闢과 人文歷史를 巫歌로 부르고 請神의 뜻으로 추는 춤이다. 손에 칼을 들고 뿌림 사위를 많이 쓰며, 비교적 열띤 춤을 춘다. 이 춤을 '신칼춤'이라고도 한다(사진 17).

<감상기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어느곳에서나 請神行爲로 추어지는 것이며 특히 군문을 열때 藝術的으로 추어진다.

감상기 : 대나무 맨 윗부분 잎사귀가 달린 곳을 90cm 정도의 크기로 잘라 사람모양의 길쭉한 형태로 지전을 오려서 잎사귀 밑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술병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堂의 500神을 請해드릴 때 추는 춤으로 먼저 神을 請하여 음복케 하고 神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게 되는데 이 때 그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움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춤은 娛神舞와 逐鬼의 性格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

<도랑춤>

큰굿의 「초감제」에서 <군문열림>의 절차에서 춘다. 回舞의 도는 사위가 많고 상당히 격렬한 춤이다.

<산판을 들고 추는 춤>

어느 곳거리에서나 나오는 춤으로 심방이 神의 의사를 물어 占을 칠때 右手에 산판을 들고 땅바닥에 가볍게 쏟으며 던져서 <천문>과 <상잔>이 엮어지거나 바로 앉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占치는 機能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사진18).

산 판 : 산판은 ‘천지대문’ ‘천지일월’이라는 음각한 대형엽전인 <천문>과 6의 잔인 <상잔> 점시모양의 <잔대>로 되어 있다.

<물그릇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굿을 할 때 神을 請하기 전에 추는 것으로 不淨을 없애기 위해 추는 것이다(사진 19).

<신칼과 쌀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신칼로 不淨을 씻게하고 쌀을 四方으로 뿌리면서 춤추므로써 1만 8천神이 사방에서 굿청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 추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춤은 逐鬼舞라 할 수 있다.

<향로춤>

큰 굿의 상축권상에서 향불로 부정을 씻는 mime이 추가된다. 향로를 들고 神을 娛神하는 춤을 춘다. 따라서 이 춤은 請神舞의 機能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

<술잔 들고 추는 춤>

대체적으로 어떠한 굿에서나 추어지는 것으로 주로 請神舞와 娛神舞의 機能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사진 20).

<군웅치마 걸치고 추는 춤>

祖上들은 請하여 娛神하는 行爲로 추어진다.

<질치기춤>

맞이굿에서 神이 내려 오는 길을 치는 mime이 추가 되는 춤이다. 또 死者의 영혼을 저승에 보내는 길을 치는 儀式에도 쓰인다. 소로작업을 세부적으로 동작화한 춤으로 특징적인 몇가지 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진 21, 22).

* 작대기 들고 추는 춤

길닦음 할 때 雜草를 치우는 춤이다. 따라서 이 춤도 勞動舞蹈이라 할 수 있다.

* 따비(농기구) 들고 추는 춤

길 닦음할 때 길을 청소한다는 뜻으로 추어진다. 따라서 이 춤은 일종의 勞動舞蹈이다.

* 광판새 들고 추는 춤

길닦음 할 때 추는 춤으로 풀을 땅에 까는 시늉을 하는 勞動舞蹈이다.

* 나부다리들고 추는 춤

종이로 나비를 작게 만들어 그것을 여러개 가지고 娛神行爲로 춤추다가 마지막에는 그 나비를 방생한다는 뜻으로 공중으로 던져버린다. 따라서 이 춤을 娛神舞라 할 수 있다.

<구할망 춤>

이 춤은 「불도맞이굿」의 소자 서천꽃놀이에 나온 춤으로 수심방이 구삼심할망을 청하면 창호지 탈을 쓰고 흰 갈증이, 치마에 지팡을 짚고, 구천낭차롱을 흑멜빵으로 지고 제장으로 들려오는 mime적인 춤이다.

<악심꽃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불도맞이굿」에서 나온 춤으로 대나무잎과 雜草를 가지고 逐鬼를 目的으로 추어진다(사진 23).

<동백꽃 들고 추는 춤>

「불도맞이굿」에서 나온 춤으로 물그릇을 머리에 이고 동백꽃을 들고 서천꽃밭에서 물을 주는 이른바 生産儀禮의 內容을 담고 있는 祝願的인 춤이다(사진 24).

<철죽대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불도맞이」에서 나온 춤으로 몽둥이를 들고 불도 할머니의 흥내를 내는 演劇性이 짙은 춤이다(사진 25).

<바라 들고 추는 춤>

바라를 아름답게 치면서 불도할머니들을 娛神시키는 目的으로 추는 춤이다
(사진 26)

<할머니다리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무지개춤」이라고도 하는데 이 춤은 「불도맞이굿」에서 할머니(神)를 방
으로 영접할 때 흰천을 들고 흔들어 娛神하는 춤을 추는 것이다(사진 27).

<十王맹감令旗 들고 추는 춤>

이 춤은 神을 맞이하기 위하여 門을 열때 추어지며 雜鬼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戰鬪的 行爲로 逐鬼舞를 겸하고 있다(사진 28).

十王맹감令旗 : 시왕을 맞는 旗는 직사각형의 지전 旗로 윗부분에 대나무를 얹게
令旗갈아서 지전을 말아 붙이고 밑부분을 사람 다리 모양으로 오
린것이다. 맹감을 맞이하는 旗는 윗부분이 둥근것이며 밑부분은
여자머리를 두 갈래 갈라 댄 것 같은 형태이다.

<애기 등에 업고 추는 춤>

옷감을 속에 넣어 애기옷을 입히고 그것을 등에 업고 애기의 日常生活을 시늉하
는 춤을 춘다. 그런데 이 춤은 토산神을 娛神하는 목적으로 추어진다고 한다. 따
라서 이 춤은 生産儀禮的 祝願舞로 娛神的 機能을 가졌다 하겠다(사진 29).

<假面쓰고 햇불 들고 추는 춤>

성냥풀이를 할 때 굿패들이 假面을 쓰고 햇불을 들고 서낭영감을 請神하여 請神
舞로 추어진다(사진 30).

<도끼들고 추는 춤>

이 춤은 「성주풀이」 할때 강태공이 수목수를 請하여 나무를 베게하는 것에서 추어진 일종의 勞動舞라 할 수 있다.

<칼 춤>

여기서 칼이라 함은 심방이 들고 巫儀式을 집행하는 신칼을 뜻한다. 巫俗무용이 대개 신칼을 쓰지만 특히 백정의 집안이나 사냥꾼의 집안에서 「산신제」혹은 「거무영청굿」 같은 곳에서 추는 칼춤이 유명하다.

거무영청굿에서는, 두 사람이 對立하여 식칼꼭지에 떡과, 고기, 果實등을 꽂고 거무영청신을 娛神하는 춤을 춘다. 이 춤은 請神을 비롯하여 娛神, 逐神 그리고 占術的인 機能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巫俗舞는 굿의 변형에 따라 춤으로서 집행해나가는 만큼 정형성을 갖추고 있어 巫覡이 신을 향한 의례집행 동작을 율동화한 춤과 神의 현시 행동을 표현한 춤, 그리고 신의 과거생활을 통해 현재 재연하는 춤으로 분류되어 행위를 상징하는 춤이 다양하게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춤은 무속의식의 기능에 역점을 둔 많은 종류의 춤이 있고 이러한 춤은 일반적으로 굿의 종류에 따라 사용된다.

V. 巫俗에 내제된 藝術的 評價

1. 美的價值

예술은 인간에 의해 존재되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實存을 터전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고유한 삶에 대한 가치와 생의 원리의 정신적 가치가 표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예술로서 굿은 초자연의 신성한 힘을 불러내고 의례절차를 통하여 祭場에서 생명의 재생과 삶의 장으로 바뀌어지며, 종교적 제의식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축제로 변해감으로서 오락적이며 예술적 경지로 발전되어간다.

굿은 의례신화의 복합체로서 굿이 진행되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내용을 달리하지만, 신의 내력과 본원을 설명하는 巫歌와 양식화된 몸짓으로 보여주는 춤 풍부한 해학과 언어적인 기지 능숙한 즉흥성을 보여주는 연극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하여 상징적이며 창조적인 표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각양각색의 상반된 태도들과 느낌들이 야기시키는 역동적인 긴장상태로 부터, 예술적 실존적 동력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세계를 형성하여 주고 연극적인 이미지들과 춤 양식을 모아 신명적인 놀이와 巫儀式에서 벗어난 美意識을 갖춘 놀이로 발전한다.

굿은 풍부한 해학과 감동적으로 사용된 이미지 및 신의 현시 행동을 모방하는 신의 과거생활을 현재 재연하는 춤 의례집행을 울동화 한 춤과 공간 상징의 패턴을 이용하여 神과 인간의 교섭적 경험과 삶에 대한 전체성을 담아낸다.

여기서 보여주는 춤들은 익살스런 모방동작 상스러운 해학의 연극적인 도구를 적절히 배열하여 삶의 원초적인 근원을 보다 일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춤에 사용되는 가면 및 소품과 행동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은 사회적 배경과 자연적 배경에 나타난 여러 요소와 결합되어 예술의 원형적인 이미지를 보

다 구체화 시켜 인간 본연의 내면적 심리세계 영혼의 미지세계에 관한 불안, 위기감을 해소하고자 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행위 예술자체가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2. 特異性

제주도 巫儀式에서 심방은 樂, 歌, 舞를 통하여 神을 청하여 하강시키고, 그 神을 빙의하여 탈선행위를 하며, 기원을 축원하고, 악령을 협박구축하여 모든 邪를 제거하는 연기를 한다.

이러한 심방의 역할 연기는 감정적 연기(Emotional Acting)과 기술적 연기(Technical Acting)로 구분되어진다고 본다.

<감정적 연기>는 빙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연기자 자신의 심경과 심리적으로 일체가 되지 않으며 역할사이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행동묘사에 치중한다.

<기술적 연기>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그럴듯 함'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오락적 성격이 강하며 연출을 기술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심방이 보여주는 예술적 재능은 그 감각이 원초적인 것으로 場面에서 말은 감흥은 특정의 신령이 강림해 계심을 믿는데서 보여지는 것으로 의식말에 자리한 영혼에 내재해 있는 근원으로 부터 우러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무의식의 장면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인간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 연극적 수단을 사용하고 독특한 형태, 구체화된 장소적 배경, 토착적 의식적인 신앙, 무속춤과 무가의 형태로 표현되는 예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제주도 무의식의 진행은 현실적인 공간이 신이 강림하는 신성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그것은 심방이 神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된다. 심방은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歌, 舞, 劇을 통하여 굿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실질적인 목적을 추구한

다.

巫는 제의와 감정의 자유스런 발산의 場으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화합, 절충, 개선, 창조해 내는 과정에서 의례의 전편 또는 그 대부분이 극적 전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신과 인간의 대화와 교섭행위로 연출해 내는 연극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극적 요소는 움직임에 가미되어 의례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사실의 재현이나 역할연기에 따른 주술적, 상징적인 동작으로 표출 되어지고 연극적이라는 의식행위와 율동적 무용의 형태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극적 표현효과 즉 신과의 만남을 관객으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하며 실제로 영혼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 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술의식이 예술과 접목함으로서 종교예술의 한 장르를 창출하게 되고 새로운 충격과 신비로움이 더욱더 민족적 개성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한국 어느 무용의 유형에서도 자연스러운 소재 선택이 주술에서 비롯되어 진다는 점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만 할 것이다.

VI. 結 論

巫俗이 종교적 관념으로서는 신앙효과에 한 부분으로 밖에 활용되어질 수 있으나 모든 巫儀式 절차중 신의 성격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춤이 가미가 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직접적 감동을 부여한다면 춤의 예술이 우선적으로 종교 이전에 용해되어 근원을 이룬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巫는 의례와 신화의 복합체로서 歌, 舞, 劇의 요소를 통하여 상징적이며 창조적인 표현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의 원형적인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시킨 진지한 삶의 놀이로서 의례의 전편 또는 그 대부분이 극적 전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신과 인간의 대화와 교섭행위로 연출해 내는 연극적 형식을 취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극적 요소는 움직임에 가미되어 굿의 성격, 상황, 심방의 역할연기에 따라 주술적이고 상징적 동작으로 표출되는 연극적이라는 춤 특성을 갖게 해주고 있다.

굿이 현존하기 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의식의 제차중에 어느 한 분야라도 예술성이 있다면 현존할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며 제주도 巫가 불교적 신앙 형태와 고유의 Animism적인 복합 신앙 형태로 제차를 통한 춤의 역할은 무용에 가치와 굿에 의한 춤의 예술 효과를 보여주며, 어느 한 순간 절정에 달할 수 있는 표현은 일반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준다. 따라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민간신앙인 측면에서 무용을 수용하여 오고 그 명맥을 이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제주도 무속문화로서 민속예술춤이 형성되어 진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 1) 제주도 巫는 민간저급 계층에 의한 전승적 문화예술현상이며 종교현상으로서 저급문화 민족의 생활속에서 자연발생학적으로 일어난 조직화된 특수한 무속신

것이고, 다양한 현상은 일상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유형 또는 그 변화의 법칙과 계열을 발견하고 그 본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2) 제주도 巫의 실체는 존재의 순환지속을 믿는 무속의 입체적 존재사고에 의해 有, 無, 滅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난을 富로 죽음을 삶으로 바꾸려는 同一根源性的의 결과에 기반을 둔 제의이다.

신령과 신당 인간의 삼자사이에서 심방이라는 직능자를 매개로 하여 의례집행을 제의절차에서 樂, 歌, 舞로써 표출되는 의의를 갖고, 부락민들이 안고 있는 역사적 사실, 즉 사회적인 억압 인간가치의 하락 가난과 천대와 멸시 그리고 생존의욕 상실과 恨으로 발산할 수도 해소할 수도 없는 무기력 상태의 고통을 심리적으로 치병을 하며 주고 있다.

이러한 치료의 기능이 더하여 신을 청해 들어 간절히 기원함으로써 신의를 유화시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기원유화를 비롯, 유감주술적이고 무혼적이며 질병이나 재앙의 원인이 되는 사악한 요괴를 협박하여 쫓아내는 협박구축의 뜻을 포함한 제의로서 불교적 신앙 형태와 고유의 Animism적인 신앙형태를 지닌 민간신앙이다.

3) 제주도 무의식의 형태적 분석에서 그 기회와 규모 목적 및 심방이 접촉교섭을 기도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되어지고 있다. 기회에서 보면 가제(일반제)와 당제(부락제)로 규모에 있어서 무격이 전무악기를 올리면서 가무로서 집행해나가는 '굿'과 무격 1인이 무악기를 쓰지 않고 춤도 없이 기원을 축원하는 단순한 의례로 무복차림을 하지 않은 채, 요령만을 흔들며 기원사실을 읊하여 1시간 내외로 끝내는 '비념'이 있다. 그리고 무격이 영혼관에 기초를 두어 접촉 교섭을 기원하는 인간의 혼에 대한 의례와 신령관에 기초를 둔 신령에 대한 의례로서, 일부 신령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의례와 모든 신령에 의한 여러가지 필요한 의례를 연속적으로 하는 종합의례가 있다. 이러한 굿과 비념의 목적은 인간 생전의 기자, 육아, 초복, 치병,

사후 樂地天度로 집약되며 구분기준은 무악기의 반주와 춤의 사용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巫俗舞는 심방이 제차에 따라 춤을 통하여 신령과 융합하는 체험을 하고 심방과 회중이 즐겁게 춤을 추므로써 신을 놀리어 신의 뜻을 움직이고 神의 과거의 역량이 굿판에서 실연하는 무의식의 기능을 갖는 공리적인 것으로 대상신에 따른 굿의 변형 속에서 정형성을 갖추고 있으며 무격이 신을 향한 의례집행 동작을 율동화한 춤과 신의 현시 행동을 표현한 춤, 그리고 신의 과거생활을 통해 현재 재연하는 춤으로 분류되어 제주도인의 과거 생활 즉, 수렵, 목축, 육아, 가사 등 생활노동의 동작을 표현하는 춤 등이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제주도 무용에 나타난 춤사위들은 구체적으로 사진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특징 및 움직임을 분석하여 의례에 나타난 춤의 내용과 춤의 성격을 비교, 도표화함으로써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속무의 상징적 주술적이며 mime적인 연극성과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춤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굿춤이 갖는 특징은,

- 1) 굿춤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人物의 전형화를 완성하고,
- 2) 심방이 사제자로서 의례행위를 표현하고, 신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신의 형태 표현에 상징성을 두고 있으며,
- 3) 제주도 춤 동선은 대부분 회전에 있으며 큰 회전, 작은 회전, 제자리 맴돌기 등 회전이 춤사위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복 회전을 할 때, 한쪽으로 돌다 제자리에 멈춘 후 반대로 역전하는데 유연한 반전의 형태가 특징적이다.
- 4) 춤의 형태는 청신, 신맞이, 신놀림, 축귀, 오신 및 축원적이고 노동무적으로 mime의 요소가 강하게 띤 연극적이고 제의적인 주술성을 띠며,
- 5) 불교 내세관의 영향으로 사후공양의례로 춤이 사용되는데 있다.
- 6) 춤에 사용되는 가면 및 소품과 행동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은 사회적 배경과

자연적 배경에 나타난 여러 요소와 결합되어 원형적인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시켜 인간 본연의 내면적 심리세계 영혼의 미지 세계에 관한 불안 위기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巫儀式 행사를 감동적으로 인간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축제 의식, 주술 의식에 의한 긍정적 삶을 재조명 하고자 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춤의 특성은 대륙의 굿춤과 비교할 때 주술적 의식성이 강한 동작 춤 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더더욱 드러나며 민속예술로서 춤이 갖는 미적가치와 함께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巫는 제의와 감정의 자유스런 발산의 場으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화합, 절충, 개선, 창조해 내는 과정으로 신과 인간의 대화와 교섭행위는 어떤 사실의 재현이나, 역할연기에 따른 주술적, 상징적인 동작으로 표출되어지고 연극적이라는 의식행위와 율동적 무용의 형태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극적 표현효과 즉 신과의 만남을 관객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며 실제로 영혼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술의식의 예술과 접목함으로써 종교예술의 한 장르를 창출하게되고 새로운 충격과 신비로움이 더욱더 민족적 개성을 상충시켜 주기 때문에 한국 어느 무용의 유형에서도 자연스러운 소재 선택이 巫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주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태곤, 「한국민속연구」, 집문당, 1981.
-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 이두현,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80.
- 이상일, 「한국의 굿과 놀이」, 문음사, 1981.
- 장주근, 이보형 공저, 「한국의 굿」, 열화당, 1983.
- 진성기, 「남국의 무속」, 영설출판사, 1987.
- 현용준, 「제주도 민속자료사전」, 신아문화사, 1980.
- ,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 이남덕 공저, 「한국의 굿」, 열화당, 1983.
- 다니엘 A. 커스터(Daniel A. Kister) 「무속극과 부조리극」,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 김승일, 「한국민속무용의 지역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원, 1991.
- 남성호, 「무속의례에 나타난 역할연기 연구」, 중앙대학원, 1991.
-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원, 1984.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 소리 연구」, 제주대학원, 1986.
- 배진수, 「무용美의 본질규명을 위한 소고」, 숙명여자대학원, 1991.
- 문화사를 중심으로 -
- 원필녀,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1992.
- 윤상인, 「민속무용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원, 1991.
- 농악과 탈춤을 중심으로 -
- 이종호, 「춤의 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학원, 1991.
- 무속적 치료기능 중심으로 -

- 황루시, 「굿의 연극성」, 이화여자대학원, 1980.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비교연구 I」, 제주대학교, 1973.
- , 「제주도 무속의 비교연구」, 제주대학교, 1975.
- , 「제주도 무속의례 연구」, 제주대학교, 1975.
- 이상일 엮음, 국립극장 공동 심포지움, 「놀이와 축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 제주도, 「제주도 통권 제83호」, 일신옵셋 인쇄사, 1987.
- , 「제주도 통권 제83-85호」, 일신옵셋 인쇄사, 1988.
- 제주도연구회, 「제주도 연구 제6집, 제주도 무속의 전통과 변화」, 1989.
- 제주칠머리당굿 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 당굿」, 1990.
-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창간호, 제2호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제주대
학교, 1987.
- ,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1987.
- , 탐라문화 제12호, 제주대학교, 1992.
- 한국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3호, 제주도 무당굿 놀
이」, 1965.
- 한국인의 문학회, 「한국언어 문학 3집 제주도 무속의례」, 1965,

ABSTRACT

A research substance and particularity of CHE JU-DO shaman dance.

Kim Jung Hee

Majour in dance

Dep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hcool of King Sejong univ

Shamanism used one of part of faithness effect for religious conception. The Dance lie at is the root of firstly art of dance existed before religion if the dance give impression to a human being.

Because of included presented dance action and character of a god in proceed any shamanism rite.

Shamanism have expressed function of creative and symbolic through element of song, dance, drama for complex of a ceremony and a myth. And it is centdring around accomplished totalic ceremony for festival of concrete serious life more than original image of arts. And we will know that have damatic formality through consensus or god and a man.

This dramatic element have dramatic dance specialquality expressed incantical

and symbolic movement because of character and situation of exorcism and practical act of shaman.

The exorcism have existic worth if it have one of artistic quality in any kind of form the proceed of exorcism until existing.

CHE JU-DO Samanism showed artistic effect of dance for dance's worth and exorcism of dance's part through proceed exorcism of buddistic faith form and original animismical complex faith form.

It is formated arouse civilian sympathy when expressed reached momentary peak. So, this is formated folk artistic dance for CHE JU-DO Shaman acture in proceed of keep alive and accept dance, followed historical and socialical situation. Take a side view of civil faith.

For result of research,

1) CHE JU-DO shamanism is transmission culture artistic organize special shaman faith occured in low culture civilian life for religion. Transmission simultaneously with life of CHE JU civilian showed suffer several graduation of historical transtion. And variously transmission included important worth for clear up, it the root through finded ordinary the way of thinking, type of actually and law of it changes and pedigree.

2) CHE JU-DO Shamanism's substance is religion ceremony. And this is being, nothing, collapse of no changes for believed chaos of existing, shamanism's

three-dimensional exist conception and stand on the basis of result of same original quality for a unhappy to a happy, a poverty to a wealth.

It is expressed music, song, dance, in proceed exorcism ceremony performance through. Shaman who is intermediated 3 parts, god, shaman and a man. And cured material state pain of enervation state this mean, civilian's historical trust, that is social press, degradation of man worth, poverty and, contemptuous treatment, contempt, desire lose for existence and lamentation. Therefore it's contained buddistic faith formation and original animismal faith formation for contained proceed exorcism, contained drive away wickedness treacherous air current. Reason for disease and calamity and included desire prayer for realize man wishes also.

3) CHE JU-DO shamanism formation for ceremony divided for date, scale, propose and shaman's contact subject and divided GA-JE(Mormal ceremony)and NG-JE(special ceremony for selected date and divided 'gus'(exorcism)and 'bea yum' Gus(Exorcism)is proceed with shamanism musical instrument of shaman for song and dance 'BEA YUM' do not used dance and musical instrument, shaman's were cloth, and shaman singing with trembled 'Yor eng' only, and finished in the one hour. And it's divided 2 part for shaman concentrated spirit conception which is ceremony for spirit of a man and concentrated to special god only which is ceremony for spirit of a god. Also it's divided other 2 part style for shaman concentrated to special god only which is 'single ceremony(No regular)' and concentrated to complex god which is complex ceremony (every 3 year regularly).

Propose of "gus" and "bea yum" is integrated wished son happiness life, wish

be blessing, cure, wish heaven. Classification standard is dance and song of shamanism musical instrument for use or not.

CHE JU-DO shaman dance is very public welfare because of mixed enjoy god, civilian and shaman delightly through song, dance, pleasure follow shaman proceed ceremony and impress to god, realized god's ability in ceremony and it's divided several classificate dance, that is, rhythmical movement dance for this is movement of proceed ceremony and expressed god's activity dance presently and past reappear dance and like labor dance (Hunting, pasturage, house holdduly etc....)

CHE JU-DO dance's dance movement can classfy diversely kind of dance formation for symbolic and incantationary of shamamism dance, dramatic mime and effected shamanism and buddism through photograph data conceretely, dance's character comparative table and dance's movement analysis table.

This shamanisn dance have special quality next article follow:

- 1) It's completed individual's typical included many dramatic element in shamanism dance.
- 2) Shaman expressed proceed ceremony for celebrant and have expresson symbolic quality for changed station of god.
- 3) CHE JU-DO dance's movement is almost rotation consist of large rotation,

small rotation and proper place rotation etc.... When it's rerotated, have smooth special formation like rotations to one side after stopped to again.

4) Dance is formation is chungshin, shinmaji, shinmolrim, chukgi, ohshin, and have religious and dramatic incantation quality and strenethed element of mime for prayeric and lavioric dance.

5) It's used dance for the incarnated life affering food to budda ceremony effected of buddism life after death.

6) symbolic quality of mask and article, action for dance is social element and natural element combined each other. And it's concluded relight to positive like for festival ceremony and incantationary ceremony because of concretized and soluted original human being of inside mentality, anxiety and crisis of unknown world of spirit more than original image for impacted shamanism ceremony to human being impressly. This dance's quality have composition of incatationary religious strenght movement dance when compared CHE JU-DO shaman dance with shaman dance of continent. And it have artistic significance with an aesthetic value of dance for folk art.

Shamanism processed creative, improvement, compromise, harmony to life of past and present for place of emanation freely of religious ceremony and feeling. A man and god's connection and interchage is expressed incantationary and symbolic activity follow cast preformance or reappearance of some fact. Darmatic expressed effect, that it. Realized meet god and civilian to themselves for

combined.

Movement danced formation and dramatic ceremony. Practically they are developemented realized situation conversation to spirit.

Concludely, it's created one of part of religious art for combined art of incantationary ceremony. And we will must be established choiced matter naturally in any kind of korea dance form shamanism because of new impact and mystery more and more promoted national identity.

寫 眞 附 錄

< 사진 17 > 배 포 춤



< 사진 18 > 산판을 들고



< 사진 19 > 물그릇 들고 추는 춤



< 사진 20 > 술잔들고 추는 춤



< 사진 21 > 작대기 들고 추는 춤



< 사진 22 > 질치기 춤



< 사진 23 > 악심꽃 들고 추는 춤



< 사진 24 > 동백꽃 들고 추는 춤



< 사진 25 > 철죽대 들고 추는 춤



< 사진 26 > 바라들고 추는 춤



< 사진 27 > 할마니다리 들고 추는 춤



< 사진 28 > 十王맹감令旗들고 추는 춤



< 사진 29 > 애기둥에 업고 추는 춤



< 사진 30 > 가면쓰고 햇불들고 추는 춤

